



한국의 SDG4 이행 현황 연구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차례

CONTENTS

I. 서론	1
II. SDG4-교육2030 개요	3
III. SDG4-교육2030 글로벌 이행 메커니즘	5
1. SDG4-교육2030 글로벌 이행 메커니즘	5
2. 글로벌 수준에서의 모니터링	6
3. 아시아태평양지역 메커니즘	8
IV. 글로벌 수준의 SDG4-교육2030 모니터링	10
1. SDG4-교육2030 지표체계	10
2. SDG4 글로벌 지표의 원출처 및 티어 수준	11
3. SDG4 글로벌 지표의 한국 수록 현황	12
V. 한국의 SDG4-교육2030 추진체계	16
1. SDG4-교육2030 협의체	16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추진	18
3. K-SDGs 교육분야 세부목표 및 지표체계	20
VI. SDG4 및 유관 목표와의 연계성	22



차례

CONTENTS

VII. 세부목표별 이행 현황과 과제	24
1. 4.1. 초·중등교육	24
2. 4.2. 영유아교육·보육	27
3. 4.3.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	31
4. 4.4. 직무 스킬	37
5. 4.5. 형평성	41
6. 4.6. 문해력 및 수리력	49
7. 4.7.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52
8. 4.a. 학교 환경	55
9. 4.b 장학금 / 교육재정	59
10. 4.c 교사	61
VIII. 요약 및 결론	66
참고문헌	70



표차례

CONTENTS

표 1	SDG4-교육2030 세부목표 및 이행 수단	3
표 2	글로벌지표의 데이터 출처 및 티어 수준	12
표 3	SDG4 글로벌·주제별 지표의 한국수록 현황	13
표 4	「SDG4-교육2030 협의체」분야별 대표기관	17
표 5	「SDG4-교육2030 협의체」주관 주요 포럼	18
표 6	SDG4 대비 K-SDG4 변경 사항	21
표 7	교육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23
표 8	고등교육 이수율	35
표 9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35
표 10	국제컴퓨터정보소양연구(ICILS) 2013 조사 결과	39
부록표 1	K-SDGs 교육분야 세부목표 및 지표	75



그림차례

CONTENTS

그림 1	SDG4 모니터링 수준 및 이행 체계	6
그림 2	SDG4-교육2030 의사결정 프로세스	7
그림 3	APMED SDG4 이행 로드맵	9
그림 4	SDG4-교육2030 모니터링 수준	10
그림 5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비전체계	19
그림 6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추진체계	20
그림 7	교육단계별 취학률(2000, 2016, 2017, 2018)	26
그림 8	OECD 국가의 PISA 영역별 성취 수준에 대한 학생 비율 추이	27
그림 9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원율(2012~2018)	29
그림 10	국공립 유치원 이용율(2022-2030)	30
그림 11	연도별 장학금지원 추이	33
그림 12	고등교육단계의 공공 및 민간 자원 비율	34
그림 13	등록금 부담 비율	34
그림 14	성별 직업 관련 평생학습 참여율	38
그림 15	대학 내 계열별 성별 비율(2018년 기준)	43
그림 16	다문화가구 자녀의 학교급별 취학률	44
그림 17	한국 성인의 연령별 언어능력 및 수리력 점수(PIAAC, 2013)	50
그림 18	시·도별 성인문해교육 잠재수요자 현황	51



I

서론

2015년 이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기 위한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유엔 주도로 세계 여러 국가들이 공조를 해 온 새천년 개발목표(MDGs : 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계승하면서 그 한계를 넘어서고자 2015년 9월 유엔은 SDGs를 채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새천년 개발목표가 빈곤퇴치 중심, 개발도상국 중심, 사회발전 중심 등을 특징으로 하였던 것에 대해 비판적 의견이 대두하면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목표의 범위를 확장하여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가는 물론이고 선진국들도 그 이행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사실상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문제는 더 이상 일부 국가에 국한될 수 없고, 전 세계가 함께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의제를 채택하고 이것의 이행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였다.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y for all)”의 목표를 세우고 이의 달성을 위해 10개의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및 분석 등을 둘러싼 논의와 국제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4)의 이행은 UNESCO 본부와 지역 사무소를 비롯하여 그 산하의 UIS 등이 국제적 논의를 이끌고 있고, 각국 정부 또한 관련 조직 및 체계를 구축하여 이러한 논의에 참여하여 목표-세부목표-지표체계의 정련 및 정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인 국제회의나 국제 포럼 등이 개최되어 각국의 이행 상황과 주요 이슈 등을 공유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인천 세계교육회의

를 주최하는 등 교육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의제 발굴 및 그 이행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내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공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 포용사회, 포용국가의 비전 및 목표와도 연계되어 목표의 국내적 수용 및 이행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그 중요성과 및 이슈를 분석하여 향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첫째, 국내 SDG4-교육2030 이행 메커니즘을 소개한다. 한국에서 SDG4-교육2030 이행은 크게 글로벌·주제별 지표의 국내 이행 및 모니터링과 국제사회 보고를 중심으로 한 「교육 2030-SDG4 협의체」 활동과 한국의 고유 맥락을 고려한 모니터링과 국내 이행을 중심으로 국가지속발전목표(K-SDGs) 수립 활동으로 나누어진다. 이에 대한 그 동안의 진행 사항을 공유한다.

둘째, SDG4 세부목표별 글로벌·주제별 통계 및 지표 작성 현황을 분석한다. 즉, 국제적 수준의 모니터링과 국제사회와의 공유를 위한 국내 교육통계 및 지표의 수집·작성 현황을 제시한다.

셋째, SDG4 세부 목표별 현안 진단과 국가지속발전목표 수립, 국내 이행을 위한 과제 등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세부목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안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국가수준의 모니터링 목표와 지표를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II

SDG4-교육2030 개요

UN에서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정하고,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협력(Partnership)의 5P 원칙에 따라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를 선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지구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a). 교육분야(SDG4-교육2030)에서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UNESCO, 2015b)이라는 목표 아래에 7개 세부목표와 3개 이행 수단을 설정하였다. 아래 <표 1>은 UN SDG4 교육분야 세부 목표와 이행 수단을 제시한 것이다.

▮ 표 1 ▮ SDG4-교육2030 세부목표 및 이행 수단

연번	세부목표 및 이행방안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한다.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영유아 발달 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접근하여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 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을 포함하는 적절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린다.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양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를 보장한다.

연번	세부목표 및 이행방안
4.7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을 보장한다.
4.a	아동, 장애인, 성차를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4.b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선진국과 다른 개발도상국의 직업훈련, ICT, 과학기술 및 공학 분야의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학금을 대폭 확대한다.
4.c	2030년까지 교사훈련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사의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 출처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6:49). 발췌 및 일부 번역 수정

UN SDG4 의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존의 개도국 중심의 EFA(Education for ALL)와 달리 선진국을 포함한 보편적 교육의제를 다룬다는 점이다. 내용적으로는 교육 질 보장과 형평성을 강조하며, 태어나면서부터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을 강조하고 있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8b). 이행체계 측면에서는 유엔차원의 공조체계(UNESCO, UNDP, UNFPA, UNHCR, UNICEF, UN Women, World Bank, ILO)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국가별 자율적인 이행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며,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이행·모니터링·보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SDGs에 있어 지표의 타당성과 지표의 가용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필요 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국가별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III

SDG4-교육2030 글로벌 이행 메커니즘

1 SDG4-교육2030 글로벌 이행 메커니즘

유네스코에서는 SDG4 실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① 거버넌스, 책무성 및 파트너십, ② 조정(Coordination), ③ 모니터링을 제시하고 있다(UNESCO, 2018). 특히, 다양한 주체 및 이해관계자가 SDG4 실천에 관여하게 되므로 원활한 조정(Coordination)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실천 수준별(글로벌, 지역, 국가)로 주도적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수준에서는 유네스코가, 지역수준에서는 European Commission(EC), Council of Europe(CoE), Organization of Ibero American States for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OEI), Associ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Africa(ADEA), Arab Bureau of Education for the Gulf States(ABEGS) 등의 조직이 SDG4-교육2030 이행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국가 수준에서는 각국의 교육 정책 및 모니터링 관련 조직(예: 교육부, 통계청) 등에 의해 국내 이행체계가 이루어진다.



- SDG4-교육2030 이행을 위한 협력과 지원(UNESCO)**
- **글로벌 수준** : 2030 의제의 조정
(예) SDG-교육2030 운영위원회, 국제교육회의, 지역회의, NGO 단체 협의회 등
 - **지역적 수준**:
(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이베로-아메리카 교육과학문화기구, 아프리카 교육발전협회, 멕시코 교육 아랍연맹 교육국 등
 - **국가적 수준**:
(예) 한국: 교육부(국가조정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괄 기관), 교육전문기관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SDG4-교육2030 협의체 에서 국내 이행을 위해 노력

그림 1 | SDG4 모니터링 수준 및 이행 체계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7) 재구성.

글로벌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이행 메커니즘의 가장 정점에는 「SDG-교육 2030 운영위원회」(SDG-Education 2030 Steering Committee)가 있다. 「SDG-교육 2030 운영위원회」 운영 목적은 회원국과 협력파트너들이 교육2030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교육2030 달성을 위한 전략적 지침과 자문을 제공하고, 모니터링과 확산(advocacy)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Seo, 2017). 운영위원회는 매년 1~2회 회의를 개최하며, 지역별 4개 대표국가가 글로벌 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서현숙, 2018).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우에는 한국, 중국, 일본 및 필리핀이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서현숙, 2018).

2 글로벌 수준에서의 모니터링

글로벌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모니터링은 크게 지표 개발 및 데이터 수집과 『글로벌 교육 모니터링 보고서(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GEM)』의 발간에 있다. 우선 지표 개발과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는 유네스코 통계국(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 UIS)이 UIS.Stat(data.uis.unesco.org)을 통해 종합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부목표에 따른 지표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글로벌 수준에서 지표 개발은 「SDG-교육 2030 운영위원회」에서 전문가협력그룹(Technical Cooperation Group, TCG), SDG에 대한 기

구 간 전문가 그룹(IEAG-SDGs), GAML(Global Alliance to Monitor Learning), 기술 자문그룹(Technical Advisory Group, TAG) 등 4개의 전문가그룹 및 네트워크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UIS, 2017). 우선, 글로벌 수준에서는 IAEG-SDGs에서 글로벌 수준의 2030 의제에 대한 목표와 세부목표의 공식적인 지표체계를 개발하며, SDGs의 모든 글로벌 지표체계를 관리한다(UIS, 2017). 주제별 수준에서는 「교육2030 운영위원회」에서 국제사회와 TCG에서 제안된 지표들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기능을 한다(UIS, 2017). 또한 TCG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된 글로벌 및 주제별 지표들에 대해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역할을 갖는다. TCG는 IAEG와 「교육2030 운영위원회」로부터 결정된 글로벌 및 주제별 지표들에 다양한 교육분야 전문가들로부터 검토된 기술적·방법론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또한 GAML은 TCG에 학습성과와 관련한 지표(4.1, 4.2, 4.4, 4.7 등)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위한 기술적·방법론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UIS,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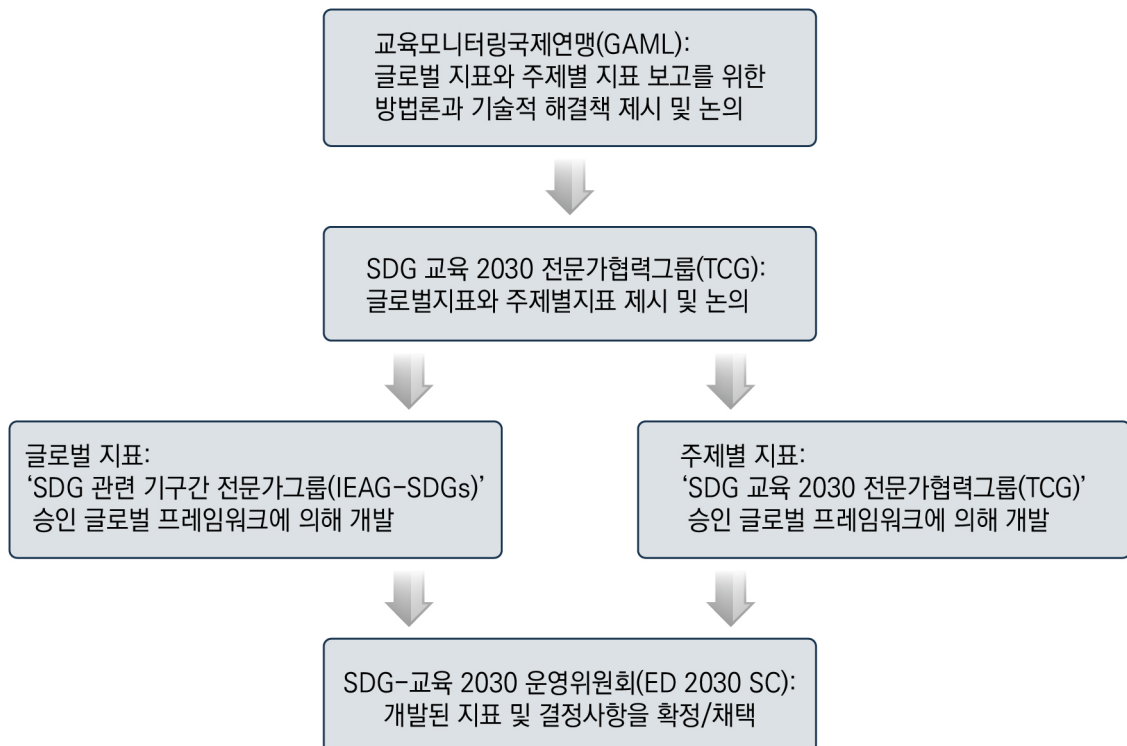


그림 2 | SDG4-교육2030 의사결정 프로세스

출처: UIS(2017:8)

글로벌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모니터링 방식은 유네스코에서 연례적으로 『글로벌 교육 모니터링 보고서(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GEM)』를 발간하는 것이다. 이는 SDG4-교육2030의 전세계적인 이행 현황을 주제별로 보고함으로써 전반적인 진행 경과를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것이다(seo, 2017). 현재까지 GEM 보고서는 2016년 『사람과 지구를 위한 교육: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 만들기(Education for people and planet: Creating sustainable futures for all)』, 2017/8년 『교육의 책무성: 우리의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Accountability in education: Meeting our commitments)』, 2019년 『이주, 강제이주와 교육: 장벽이 아닌 가교 만들기(Migration, displacement and education: Building bridges, not walls)』 등 3편이 발간되었다. 또한 2020년에는 『포용성과 교육(Inclusion and education)』이라는 주제로 발간 예정이다.

3 아시아태평양지역 메커니즘

아시아태평양지역 이행체계는 유네스코 방콕사무소와 유니세프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가 주도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이행체계에서 가장 중심적인 협의체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교육2030 회의(Asian-Pacific Meeting on Education 2030, 이하 APMED)」이다. APMED는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국의 교육 2030 이행 지원 및 조정을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APMED는 2015년부터 연 1회 개최되고 있다. 2015년 제1차 회의에서는 교육 2030 의제 공유와 지역 협의체 구성이 논의되었고, 2016년 제2차 회의에서는 교육 2030 국가조정관 네트워크 구성, 지역 이행 로드맵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서현숙, 2018). 2017년 제3차 회의부터는 국가조정관 네트워크회의와 더불어 주제별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는 SDG4.7(GCED와 ESD) 주제 포럼, 2018년 제4차 회의에서는 SDG4.3(고등교육) 및 4.4(직업기술교육) 주제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올해 제5차 회의에서는 SDG4.1(초·중등교육) 및 4.6(문해) 주제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서현숙, 2018).

APMED에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이행 로드맵으로 3개 우선순위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APMED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선순위 영역은 (1) 확산 및 정보·지식 교환(advocacy, information and knowledge exchange), (2) 역량 개발(capacity development), (3) 모니터링(monitoring)이며, 이를 5개 단계로 구분하여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이하 UNESCO, 2018). 1단계(2015-16년)는 토대 구축 단계로 주로 의제 확산과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1단계에서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SDG4-교육2030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이행 메커니즘 구축을 목적으로 하였다. 2단계(2017-19년)는 목표 명확화(Clarification of Targets) 단계로 세부목표에 대한 개념, 정의, 필요 데이터, 내용, 주제 간 연관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목표로 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2019년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이하 HLPF)의 글로벌 리뷰의 일환으로 첫 번째 지역 이행 과정 리뷰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단계에서는 SDG4에 새로 포함된 세부목표들, 가령 4.7(지속가능발전, 인권, 성평등, 시계시민성, 평화, 문화다양성), 4.3(고등교육과 직업기술교육), 4.4(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기술) 등에 대한 심화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3단계(2020-23년)는 본격적인 이행 점검 단계로 지역 수준의 진행 사항을 검토한다. 또한 국가별로도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국가 간 격차, 과제와 우수사례 등에 대해 검토한다. 4단계(2024-27년)에서는 지역 수준의 중간 검토 단계를 마무리하고, 그 동안의 성과와 남아 있는 과제를 점검하고, 마지막 5단계(2028-30년)에서는 그 동안의 성과와 교훈 등을 기반으로 미래의 교육 의제를 계획하게 된다. 아래 [그림3]은 APMED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개 우선순위 영역과 5개 이행 단계를 제시한 것이다.

요소 / 단계	1단계 : 기반 형성	2단계 : 대상의 명확화 및 조직화	3단계 : 이행 및 1차 진행 검토	4단계 : 성공을 위한 검토 및 가속화	5단계 : 미래를 위한 진행
일정	2015-2016	2017-2019	2020-2023	2024-2027	2028-2030
지지기반과 지식의 변화		SDG4 관련자 / 자원자의 역할 도출			
		파트너십의 확장 : 학계 및 민간 분야			
		SDG4 가속을 위한 활동 도출			
역량의 개발 및 강화	제1차 APMED(2015)	제 3차 APMED(2017) : 4.7	제 2차 APREC(아시아태평양 지역 교육 회의) (2020) : 2022년 중간 보고 준비(제 7차 APMED)	제 8차 APMED(2024)	제 10차 APMED(2028)
	제2차 APMED(2016)	제 4차 APMED(2018) : 4.3, 4.4		제 9차 APMED(2026)	제 3차 APREC(아시아태평양 지역 교육 회의)(2028)
		제 5차 APMED(2019) : 4.1, 4.6			제 11차 APMED(2030)
		연수모듈의 개발과 도출			
모니터링과 분석		진행사항 검토			
		29개 지표의 개발	진행사항 검토(2020)	중간 보고 완성(2024)	최종 보고(2028)
		지역기본보고서	제 2차 글로벌 모니터링(2023)		최종 진행사항 보고-도전 과제와 성과(2030)
		제 1차 글로벌 모니터링 (2019)			

그림 3 | APMED SDG4 이행 로드맵

출처: UNESCO (2018:25)



IV

글로벌 수준의 SDG4-교육2030 모니터링

1 SDG4-교육2030 지표체계

UN에서는 교육 분야 세부목표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을 위해 지표체계를 글로벌 수준, 주제별 수준, 지역별 수준, 국가별 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1개 글로벌 지표와 43개 주제별 지표(글로벌 지표 포함)를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지표는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기준이 분명한 지표를 의미하며, 주제별 지표는 영역별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지표들을 의미한다. 지역(regional) 수준 지표는 지역수준 국제기구(예: UNESCO Bangkok, ASEAN 등)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른 모니터링 지표를 의미하고, 국가수준 지표는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국가의 맥락 속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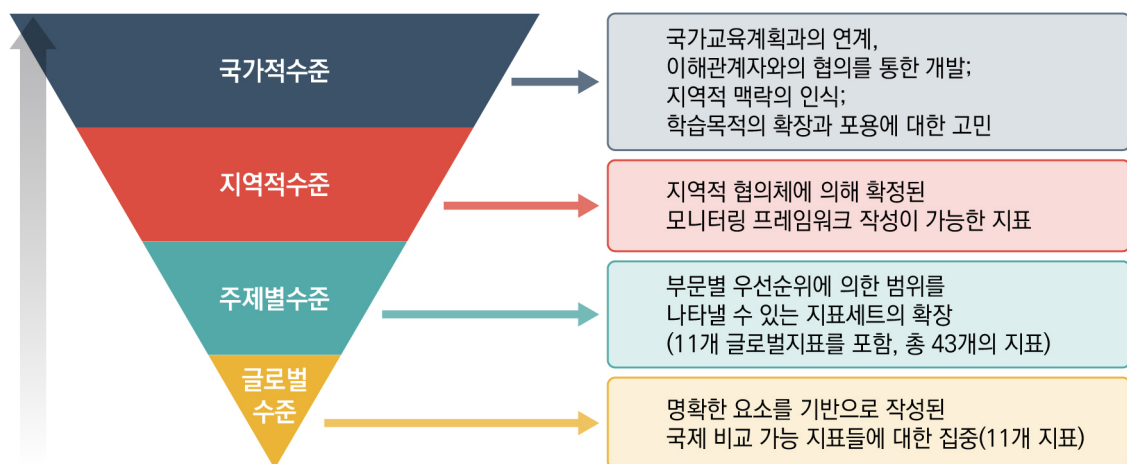


그림 4 | SDG4-교육2030 모니터링 수준

출처: UIS(2016). UNESCO Bangkok Office (2018:25) 재인용

SDG4-교육2030에서 설정하고 있는 43개 글로벌·주제별 지표는 아래 <표 2>와 제시되어 있다. 이들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환경, 자원, 학습준비, 동기, 자격, 학습, 훈련, 스킬, 지식, 교육이수, 참여, 정책, 교육 제공, 스킬 등의 측면에서 각 세부목표의 성격에 맞게 설정되었다. 가령, 4.1 초중등교육 및 중등교육의 세부지표는 읽기 및 수학분야의 최소숙달 기준과 국가수준 학습 평가 시행 등과 같은 학습 측면, 진급율, 이수율과 같은 교육 이수 측면, 학교밖 학생 비율과 졸업 과연령 학생 비율과 같은 참여 측면, 그리고 초등 및 전기중등 단계의 의무·무상교육 연수 등과 같은 학습 제공 측면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4.2 영유아교육 역시 유사하게 초등교육 준비도, 학습 참여, 학습 제공 등과 관련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4.3은 학습 참여, 4.4는 스킬, 4.5는 정책, 4.6은 스킬과 참여, 4.7은 교육 제공 등과 관련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글로벌 지표는 각 세부목표별 1개씩 구성되어 있으며, 4.2 유아교육·보육 세부목표만 2개가 구성되어 있다.

2 SDG4 글로벌 지표의 원출처 및 티어 수준

SDG4의 글로벌 지표들은 대체로 이미 국제적 수준에서 조사 또는 수합되고 있는 통계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령, 4.1의 최소 숙달 기준을 달성한 아동 및 청소년의 비율은 PISA와 TIMSS 같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며, 4.2의 경우 UNICEF나 OECD UOE data collection 등에서 공식적으로 수집하는 통계들을 활용한다. 또한 4.a의 경우처럼 일부 지표들은 INES 수시조사(Adhoc Survey)와 같은 비정기 조사를 통해 조사하기도 한다. 반면에 4.5에서 일부 불평등 지수나 4.7의 지속가능발전 및 세계시민교육처럼 가용한 데이터 및 측정 방법이 부재한 지표들도 존재한다.

SDG4에서는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각 지표에 대한 가용 데이터 수준에 따라 데이터 수준을 티어(Tier) 1, 2, 3로 구분하고 있다. 티어1은 방법론과 지표 표준이 있으며 동시에 데이터가 국제적으로 폭넓게 존재하는 수준을 의미하며, 티어2는 방법론과 지표 표준이 있거나 개발 가능하지만 제한된 국가 또는 항목 등으로 그 범위가 제한적인 수준을 의미한다. 티어3은 방법론이나 지표 표준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데이터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2019년 현재 11개 글로벌 지표 중 티어1에 해당 하는 지표는 4.2.1과 4.b.1 2개 이며, 티어2에 해당하는 지표는 4.1.1, 4.3.1, 4.4.1, 4.6.1, 4.a.1, 4.c.1 등 6개이다. 티어3에 해당하는 지표는 4.7.1이다. 4.2.1의 일부 항목(신체적 건강, 학습)은 티어2에 속하고 일부항목(심리사회적 특성)은 티어3에 속한다. 4.5.1. 형평성 지수 역시 데이터에 따라 달리 분류될 수 있다.

【 표 2 】 글로벌지표의 데이터 출처 및 티어 수준

글로벌 지표	지표명	출처	데이터 수준 (Tier)
4.1.1	(a) 초등학교 2-3학년 (b) 초등교육 말기 (c) 중학교 말기에 (i) 읽기와 (ii) 수학분야에서 최소숙달 기준을 달성한 아동 및 청소년 비율 (성별)	PISA TIMSS	II
4.2.1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특성의 측면에서 발달 정도가 정상적인 5세 미만 아동의 비율(성별)	UNICEF	II / III
4.2.2	정규 초등학교 입학연령 전 1년 동안 체계화된 학습 참여 비율(성별)	UOE data collection	I
4.3.1	지난 12개월 동안 형식 및 비형식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성별)	PIAAC	II
4.4.1	ICT 역량을 보유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역량 유형별)	EUROSTAT & ITU	II
4.5.1	모든 교육 지표에 대한 형평성 지수 산출(성별, 지역규모, 소득, 장애여부, 이주민 여부, 분쟁 발생 여부 등의 가용 데이터가 있는 경우 세분화)	-	I / II / III
4.6.1	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비율(성별)	PIAAC	II
4.7.1	성평등과 인권을 포함하는 i)세계시민교육, ii)지속가능발전교육이 (a)국가교육정책, (b)교육과정,(c)교사교육, 그리고 (d)학생평가 등 모든 영역에서의 주류화 되어 있는 정도	-	III
4.a.1	(a) 전기; (b) 교육목적의 인터넷; (c) 교육목적의 컴퓨터; (d) 장애학생을 위해 개조된 기반시설 및 자재들; (e)기초 식수 (f) 성별로 분리되어 있는 기초위생시설; (g)기초 손씻기 시설(WASH 지표(물, 위생시설, 위생관념) 지표 정의에 따른) 등을 보유한 학교 비율	INES adhoc survey	II
4.b.1	장학금 명목의 공적개발원조 규모(학문 영역 및 분야별)	OECD	I
4.c.1	(a)유아, (b)초등,(c)전기중등, (d)후기중등 교사 중에서 국가가 요구하는 특정 수준의 수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체계화된 교원 교육 및 훈련을 사전에 혹은 재직 중 받은 교사의 비율	UIS	II

* 출처 : 내부자료 및 UN SDGs 웹페이지(2019.UIS 홈페이지(2019.7.26.인출))

3 SDG4 글로벌 지표의 한국 수록 현황

글로벌 지표의 한국 수록지표 현황은 아래 <표 2>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총 43개 글로벌·주제별 지표 중 유네스코 통계국(UIS)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지표는 32개이며, 이 중 한국자료는 19개 지표에 수록되어 있다(19.5.15.현재). 한국자료 수록 19개 지표는 기존에 OECD에 제공하고 있는 UOE(UNESCO-OECD-Eurostat) 공통지표이다. 나머지 24개

지표에 대해서는 신규 조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SDGs에서는 모든 지표에 대해 분리통계(성별, 지역, 소득수준, 인종, 이주배경, 장애 등)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SDG4의 경우 세부목표 4.5는 교육의 형평성과 관련한 것으로, 모든 SDG4 지표에 대해 형평성 지수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다수의 지표에서 분리통계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UIS 데이터베이스에 탑재되어 있는 19개 한국 지표 중 분리통계가 제시되어 있는 지표는 11개이며, 이마저도 성별, 지역별 지표 정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사회적 불평등과 형평성, 포용성 등이 최근 국가계획 및 정책의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지역 간 격차,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격차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및 탈북가정의 증가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도 커져가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져가고 있다.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대상에 대한 효과적인 실태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성, 지역, 소득수준, 이주배경, 장애여부, 탈북민 등에 대한 분리통계의 조사 및 지표 작성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표 3 | SDG4 글로벌·주제별 지표의 한국수록 현황

세부목표 및 이행방안	개념	주제별 지표 번호	목표별 세부지표(indicator)	SDG 4 DB 지표 현황	한국 자료 수록	한국 분리통계 수록
4.1.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	학습	4.1.1	(a) 초등학교 2 혹은 3학년 시점, (b) 초등학교 졸업학년 (c) 중학교 졸업학년에 (i) 읽기와 (ii) 수학분야에서 최소속달 기준을 달성한 아동 및 청소년 비율	○	○	△
		4.1.2	(a) 초등학교 2-3학년 (b) 초등교육 말기 (c) 중학교 말기 국가 학습 평가 집행	○	○	×
	이수	4.1.3	최종학년 진급률(초등, 전기중등)	○	○	○
		4.1.4	교육이수율(초등, 전기중등, 후기중등)	○	×	×
	참여	4.1.5	학교밖 비율(초등, 전기중등, 후기중등)	○	○	×
		4.1.6	졸업 과연령 아동 비율(초등, 전기중등)	○	○	○
	제공	4.1.7	법적으로 보장하는 (i) 무상 (ii) 의무 초등 및 전기중등교육 연수	○	○	-
4.2. 영유아 교육	초등교육 준비도	4.2.1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특성의 측면에서 발달 정도가 정상적인 5세 미만 아동의 비율(성별)	○	×	×

세부목표 및 이행방안	개념	주제별 지표 번호	목표별 세부지표(indicator)	SDG 4 DB 지표 현황	한국 자료 수록	한국 분리 통계 수록
	참여	4.2.2	정규 초등학교 입학연령 전 1년 동안 체계화된 학습 참여 비율(성별)	○	○	○
	초등교육 준비도	4.2.3	긍정적, 고무적 가정 학습 환경을 경험한 5세 이하 아동 비율	×	×	×
	참여	4.2.4	유아교육·보육 총 취학률	○	○	○
	제공	4.2.5	법적으로 보장하는 (i) 무상 (ii) 의무 유아교육 연수	○	○	×
4.3.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	참여	4.3.1	지난 12개월 동안 형식 및 비형식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성별)	○	○	○
		4.3.2	고등교육 총 취학률	○	○	△
		4.3.3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비율 (15-24세)	○	○	○
4.4. 직무 스킬	스킬	4.4.1	ICT 역량을 보유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 (역량 유형별)	○	○	×
		4.4.2	디지털 문해 능력의 최소 숙달기준을 달성한 청소년/성인 비율	×	×	×
		4.4.3	연령집단별, 경제활동상황별, 교육 수준별, 프로그램 유형별 청소년/성인의 교육 이수율	○	○	○
4.5. 형평성	정책	4.5.1	모든 교육 지표에 대한 형평성 지수 산출(성별, 지역 규모, 소득, 장애여부, 토착민 여부, 분쟁 발생 여부 등의 가용 데이터가 있는 경우 세분화)	○	○	△
		4.5.2	초등교육에서 수업 언어가 제1언어 혹은 모국어인 학생 비율	×	×	×
		4.5.3	명시적 공식 정책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에게 교육자원을 재분배하는 정도	×	×	×
		4.5.4	교육단계별, 교육재원별, 학생1인당 공교육비	○	○	×
		4.5.5	저소득 국가에 할당된 총 교육 원조 비율	○	○	×
4.6. 문해력 및 수리력	스킬	4.6.1	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비율(성별)	○	○	○
		4.6.2	청소년/성인 문해율	○	×	×
	참여	4.6.3	청소년/성인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	×	×
4.7. 세계시민교육	제공	4.7.1	성평등과 인권을 포함하는 i)세계시민교육, ii)지속 가능발전교육이 (a)국가교육정책, (b)교육과정,(c)교사교육, 그리고 (d)학생평가 등 모든 영역에서의 주류화되어 있는 정도	×	×	×

세부목표 및 이행방안	개념	주제별 지표 번호	목표별 세부지표(indicator)	SDG 4 DB 지표 현황	한국 자료 수록	한국 분리 통계 수록
		4.7.2	생활양식 기반의 HIV 및 성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비율	O	X	X
		4.7.3	인권교육에 관한 세계 프로그램이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정도 (UNGA 결의 59/113에 따라)	X	X	X
	지식	4.7.4	세계시민 및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보이는 연령집단(혹은 교육수준)별 학생 비율	X	X	X
		4.7.5	환경과학 및 지구과학에 관한 숙달된 지식을 보이는 15세 학생 비율	X	X	X
4.a. 학교 환경	자원	4.a.1	(a) 전기; (b) 교육목적의 인터넷; (c) 교육목적의 컴퓨터; (d) 장애학생을 위해 개조된 기반시설 및 자재들; (e)기초 식수 (f) 성별로 분리되어 있는 기초 위생시설; (g)기초 손씻기 시설(WASH 지표(물, 위생시설, 위생관념) 지표 정의에 따른) 등을 보유한 학교 비율	O	O	X
		환경	4.a.2	괴롭힘, 체벌, 희롱, 폭력, 성차별 및 학대를 경험하는 학생 비율	O	X
		4.a.3	학생, 교원, 기관 등에 대한 외부공격 발생 수	O	X	X
4.b. 장학금	수	4.b.1	장학금 명목의 공적개발원조 규모(학문 영역 및 분야별)	O	X	X
		4.b.2	수혜국에게 수여되는 고등교육 장학금 수	X	X	X
4.c. 교사	훈련	4.c.1	(a)유아, (b)초등,(c)전기중등, (d)후기중등 교사 중에서 국가가 요구하는 특정 수준의 수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체계화된 교원 교육 및 훈련을 사전에 혹은 재직 중 받은 교사의 비율	O	X	X
		4.c.2	교육단계별 학생 대비 훈련된 교사 비율	O	X	X
	자격	4.c.3	교육 수준 및 기관 유형에 따른 국가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교사의 비율	O	X	X
		4.c.4	교육 수준별, 학생 대비 자격을 갖춘 교사 비율	O	X	X
	동기	4.c.5	동등한 교육 수준을 요하는 기타 직업과의 상대적 평균 교사월급	X	X	X
		4.c.6	교육 수준별, 교사 감소율	O	X	X
	지원	4.c.7	연수 유형에 따른 최근 12개월 동안 직무연수를 받은 교사 비율	X	X	X

* 굵은 글씨는 글로벌 지표

* 분리지표 중 일부(성별, 지역)만 조사된 경우 △표기함

* 출처 : 내부자료(현행화시점 : 2019.5.15.)



V

한국의 SDG4-교육2030 추진체계

1 SDG4-교육2030 협의체

한국의 SDG4의 추진체계는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교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SDG4-교육2030 협의체」 중심의 활동이며, 다른 하나는 환경부·지속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민관학 합동 작업반 활동이다. SDG4-교육2030의 국내 이행의 국가조정관(National Coordinator)은 교육부 국제교육협력관이며, 이에 대한 사무총괄기관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SDG4-교육2030의 국내이행을 위해 교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2017년 국내이행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2018년 5월 10개 기관이 참여한 SDG4-교육2030 워킹그룹 대표기관 업무협약(MOU)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근거한 「SDG4-교육2030 협의체」가 구성되었다. SDG4-교육2030 워킹그룹 대표기관 업무협약 체결 기관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네스코아태국제이해교육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10개 기관이며, 「SDG4-교육2030 협의체」에는 위 기관 이외에 교육부(국제교육협력담당관, 교육통계과)와 통계청(통계개발원, 통계교육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각 SDG4-교육2030 워킹그룹 대표기관은 각 분야별 워킹그룹들을 별도로 운영하며, 각 영역별 국내이행 목표 및 지표 설정 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표 4 「SDG4-교육2030 협의체」분야별 대표기관

구분	SDG4 세부목표	담당기관
국가조정관		교육부
사무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표기관	초등교육(4.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영유아교육(4.2)	육아정책연구소
	고등교육(4.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직업훈련(4.3, 4.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ICT(4.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형평성(4.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생교육(4.6)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과 지속가능발전(4.7)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모니터링과 보고(전체)	한국교육개발원

* 출처 : 내부자료

「SDG4-교육2030 협의체」는 2017년 구성된 이래 많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는 K-SDGs 민관학 공동작업반 활동이다. K-SDGs 민관학 공동작업반 「SDG4-교육2030 협의체」의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였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 그 이외에도 시민단체 및 대학교수들 등 총 20명이 참여하였다. 협의체에서는 K-SDG4의 국내이행목표와 지표 설정과 관련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K-SDG4 목표 및 지표가 설정되었다. 이를 위해 협의체에서는 각 세부목표(4.1~4.7)별로 하위 워킹그룹을 구성하였으며, 세부목표별 국내이행 과제와 국내지표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SDG4-교육2030 협의체」는 SDG4-교육2030의 국내 확산과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추진하여 왔다. 전체 협의체 차원에서는 2017년과 2018년에 [SDG4-교육2030 포럼]을 개최하였다. 2017년 제1회 SDG4-교육2030포럼은 한국교육과 SDG4-교육2030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2018년 제2회 포럼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양질의 고등교육과 직업기술교육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올해 제3차 포럼은 포용성과 교육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각 세부목표 워킹그룹별로도 포럼을 개최하여 각 분야별 학문영역에서의 논의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 외에도 SDG4의 인식 제고 및 홍보(advocacy)를 위해 총 11종의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였다.

표 5 「SDG4-교육2030 협의체」 주관 주요 포럼

세부목표	포럼 주제	일시
전체	제1회 SDG4-교육2030 포럼 : 한국교육과 SDG4-교육2030	2017.11.14
전체	제2회 SDG4-교육2030 포럼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양질의 고등교육과 직업기술교육	2018.11.09
전체	제3회 SDG4-교육2030 포럼 : 포용성과 교육	2018.11.(예정)
초등교육(4.1)	SDG4.1 국내이행을 위한 현황과 과제 포럼	2018.11.15
영유아교육(4.2)	SDG4.2 양질의 영유아교육·보육 포럼	2018.11.30
	SDG4.2 연합학술대회 : 모든 영유아를 위한 양질의 교육·보육	2019.05.10
고등교육(4.3)	국회 세미나 EduNext 14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 혁신 방안	2018.08.27
교육형평성(4.5)	SDG4.5 교육형평성 포럼	2018.09.17
평생교육(4.6)	SDG4.6 네트워크 포럼	2018.11.13
교육과 지속가능발전(4.7)	2018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 포럼	2018.12.07
모니터링과 보고	SDG4 모니터링과 국내 이행 포럼	2018.11.20

* 출처 : 내부자료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추진

환경부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관리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목표의 전환을 목적으로 수립되었다(환경부, 2018a). K-SDGs에서는 UN에서 제시한 17개 목표를 망라하되, 169개 세부목표에 대해서는 대표성, 시급성, 국내 이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 및 전략의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환경부, 2018a).

K-SDGs는 2017년 8월 국정과제로 ‘지속가능 발전 거버넌스 재정립’(국정과제 61-1)이 채택됨으로써 그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2018년 2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추진계획이 수립되었다. K-SDGs는 시민단체, 산업계, 정부부처, 국책연구소,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민관학 공동 작업반의 초안을 토대로 이해관계자그룹(K-MGoS)과 부처별 실무TF 및 국장급 협의체 등의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초안은 총 192명으로 이루어진 K-SDGs 민관학 작업반에서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총 38회의 회의를 거쳐 작성되었다. 그 후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그룹(K-MGoS)의 입장문서 제출(6월, 11월), 지역별

순회 토론회(6월), 상·하반기 국민 대토론회(6월, 10월) 등 국민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관계부처 합동, 2018). 최종적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11월)과 녹색성장위원회(12월)를 거쳐 2018년 12월 24일 국무회의 보고 및 승인을 통해 확정되었다.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승인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5대 비전, 17개 목표, 122개 세부목표, 21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환경부, 2018b). 이처럼 K-SDGs는 기존에 행정부처에서 각종 정책 및 계획 등을 먼저 수립한 후 관계 전문가와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과는 다른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는 특징이 있다(환경부, 2018b). K-SDGs 민관학 공동작업반에는 「SDG4-교육2030 협의체」의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시민단체 및 대학교수들 등 총 20명이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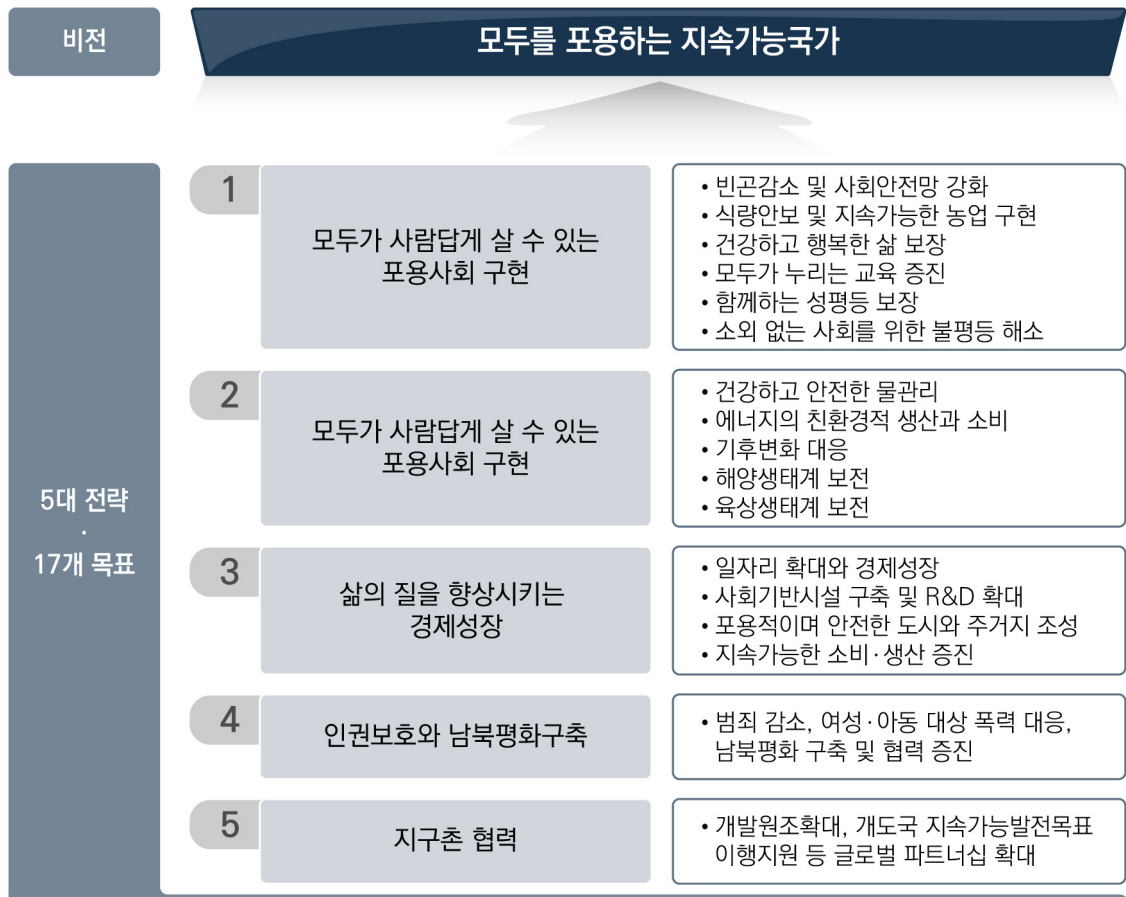


그림 5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비전체계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8:4).

국무회의 보고 후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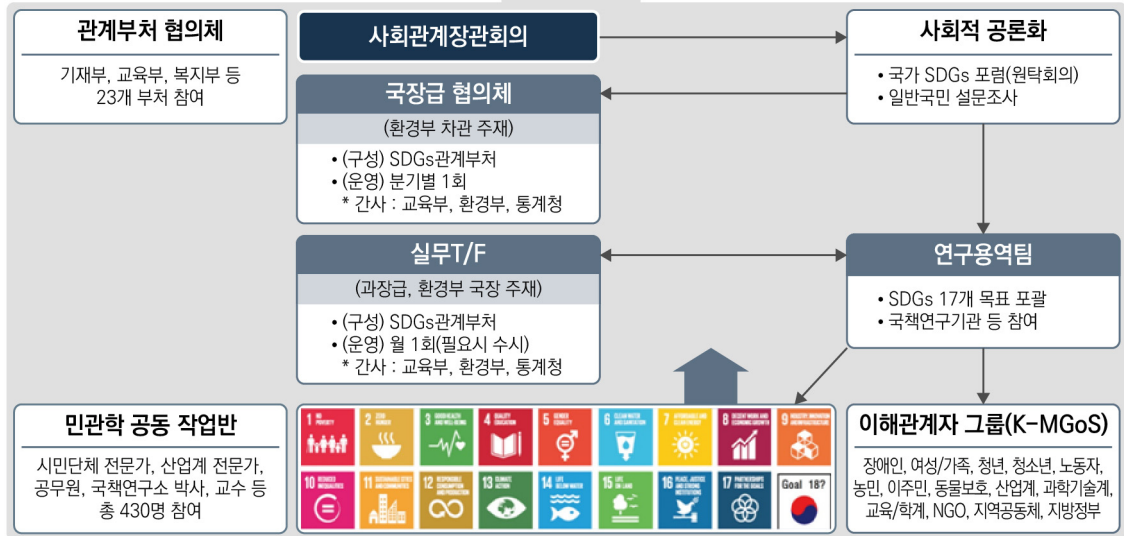


그림 6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추진체계

출처: 한국행정학회(2018:3).

3 K-SDGs 교육분야 세부목표 및 지표체계

K-SDGs 교육분야의 경우에는 10개 세부목표와 2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SDG4에서 설정하고 있는 43개 글로벌·주제별 지표보다 적은 것으로 한국의 교육 맥락이 고려된 것이다. 이 중 17개 지표는 글로벌·주제별 지표와 동일(혹은 유사)하며 10개 지표는 신규로 설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거나, 국제적으로는 주요지표이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달성되어 있는 지표들이 제외되었다. 가령, 4.a의 자원 영역(전기, 인터넷, 컴퓨터, 식수, 위생시설 등)은 한국에서는 법적 의무 사항이거나 모든 학교에서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지표로 제외되었다. 또한 4.1의 진급율과 완수율, 과연령 취학률, 의무교육연수 등은 한국에서 최상위 수치를 보이는 지표들은 제외하였다. 물론, 이러한 지표들은 국가지표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표이므로 한국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이 외에도 지표 측정 문제로 4.4의 ICT 역량 관련 지표들이 제외되었다.

아울러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변형되거나 추가된 세부목표와 지표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SDG4 이행 수단에 해당하는 4.a, 4.b, 4.c 목표의 경우 글로벌 목표의 이행이 아닌 국내 이

행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 국내 맥락에 맞는 목표와 지표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SDG4.a에 해당하는 K-SDG 4.8 목표의 경우 포용적이고 안전한 학습환경, SDG4.b에 해당하는 K-SDG 4.9 목표는 교육재정 확보, SDG4.c에 해당하는 K-SDG 4.10 목표는 양질의 교사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SDG4.5에서는 SDG4 모든 지표에 대해 성별, 지역별, 소득수준별, 장애별, 이주배경별 분리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K-SDG4 다른 목표에서 제외되었지만 배경별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취학률과 중도탈락률 지표를 여기에 추가하였다. 아래 <표 6>은 K-SDGs 교육분야에서 변경되어 반영된 세부목표와 지표를 제시한 것이다. 또한 신규 및 대체 지표들의 데이터 티어(Tier) 수준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K-SDGs 교육분야 세부목표와 지표는 [부록표 1]에 제시하였다.

표 6 | SDG4 대비 K-SDG4 변경 사항

구분	지표	데이터 수준 (티어)	비고
4.2. 영유아교육·보육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율	I	신규
4.3.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	고등교육 이수율	I	대체
	고등교육 공교육비 민간부담율	I	대체
4.5. 형평성	취학률	II	대체
	학업중단율	II	*4.1.유사지표
4.7.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 교수역량강화 교원연수 누적 인원	III	대체
4.a. 학습환경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I	목표수정
	학교 내진보강률	II	
	Wee클래스 설치비율	II	
4.b. 교육재정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I	목표수정
4.c 교사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	II	목표수정
	특수교사 일인당 특수학생 수	I	
	공립유치원 정규교사 배치비율	II	
	초·중등 전문상담교사 배치비율	II	

* 출처 : 내부자료



VI

SDG4 및 유관 목표와의 연계성

교육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실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UNESCO, 2017b). 교육은 SDG4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른 17개 목표와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는다. UN 총회에서는 “양질의 교육에 대한 완전한 접근 기회 제공은 인간의 발전 뿐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빈곤의 퇴치, 양성 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의 실현, MDGs를 포함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발전 목표의 달성, 여성과 남성, 특히 청년들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건”(UN, 2012; 이희수, 2018a 재인용)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은 빈곤(SDG1), 건강과 웰빙(SDG3), 양성 평등(SDG5), 기후 변화(SDG13), 평화(SDG16) 등과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UNESCO, 2017b).

이희수(2018a)는 교육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다음 <표 7>과 같이 정리하였다. 즉, 사회경제적으로는 교육은 빈곤을 감소시키고(SDG1) 수입을 증대시키며(SDG8). 삶의 질 차원에서는 교육수준을 높여 건강관련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고(SDG3), 건강 관련 이해를 증진시켜 위생의 개선을 가져온다(SDG6). 또한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높임으로써 자녀의 영양상태를 개선시킨다(SDG2). 지속가능 발전 측면에서는 교육은 국가들로 하여금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용하도록 하며(SDG9),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SDG11). 환경 측면에서는 교육은 사람들이 에너지와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과 자원의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며(SDG12),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여 기후 변화(SDG13), 바다(SDG14), 육지생태계 보호(SDG15)에 노력하도록 한다. 아울러 교육은 불평등과 불공정을 제거하여 양성 평등을 실현하고(SDG5),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하며(SDG10), 건강한 시민사회가 건설될 수 있도록 돕는다(SDG16)고 할 수 있다.

표 7 | 교육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세부목표	교육의 역할
SDG1 빈곤증식	교육은 빈곤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 방법 중 하나
SDG2 기아해소와 지속가능농업	어머니 교육은 자녀의 영양 상태를 개선
SDG3 건강 및 웰빙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 관련 위험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줄어들
SDG4 양질의 교육	교육은 타인을 교육하고 학습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를 향유시킴으로써 그 자신을 발전시킴
SDG5 양성평등	교육은 소녀와 여성들이 그들의 가정, 지역사회, 직장 등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함
SDG6 물과 위생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위생과 건강 간의 상관성에 대해 더 잘 이해함에 따라 위생시설 개선이 이루어짐
SDG7 에너지	교육과 함께 깨끗하고 이용 가능한 에너지는 국가의 사회, 경제, 환경발전의 필수 요소임
SDG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교육은 경제 발전과 번영을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동인 중 하나
SDG9 혁신과 인프라	교육을 통하여 국가들은 진보, 건강, 안전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 집합체를 만들고 이를 운영할 더 나은 역량을 갖춘
SDG10 불평등완화	더양한 인구, 지역, 문화적 특성을 가진 보다 많은 아동들이 교육받음에 따라, 국가의 임금 불평등 개선이 이루어짐
SDG11 지속가능한 도시	교육을 통하여 사람들은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창의적 방안을 이해하고, 지원하며, 만들어 낼 수 있게 됨
SDG12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교육은 사람들이 에너지와 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킴
SDG13 기후변화 대응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환경에 대한 인식이 증가
SDG14 해양 생태계	
SDG15 육상 생태계	
SDG16 평화와 정의, 제도	교육은 평화, 관용, 건강한 시민사회 건설의 선도자
SDG17 파트너십	파트너십은 개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출처 : 이희수(2018a:12-16)를 수정하여 제시함



VII

세부목표별 이행 현황과 과제

1 4.1. 초·중등교육

■ 세부목표와 지표

SDG4.1 goal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		
구분	SDG4.2 indicators	비고
학습	(a) 초등학교 2-3학년 (b) 초등교육 말기 (c) 중학교 말기에 (i) 읽기와 (ii) 수학분야에서 최소숙달 기준을 달성한 아동 및 청소년 비율(성별)	K-SDGs 중점 지표
	(i) 초등학교 2-3학년 (ii) 초등교육 말기 (iii) 중학교 말기 국가 학습 평가 집행	K-SDGs 중점 지표
이수	최종학년 진급률(초등, 전기중등)	
	이수율(초등, 전기중등, 후기중등)	
참여	학교밖 비율(초등, 전기중등, 후기중등)	
	졸업 과연령 아동 비율(초등, 전기중등)	
제공	법이 보장하는 (i) 무상 (ii) 의무 초등 및 전기중등교육 연수	

※ 굵은 글씨는 글로벌 지표이며, < >안은 K-SDGs 지표임.
단, 글로벌 지표와 K-SDGs 지표가 일치하는 경우 괄호는 생략하고 비교란에만 표기함.

SDG4.1에서 초·중등교육은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2억 6천 4백만명의 아동·청소년이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는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a)는 점과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과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 MDG)와 같은 교육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과 학생들의 학습수준이 낮다는 데 기인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경우 여전히 읽기, 셈하기 등 기초소양이 불가능한 아동 및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다수 보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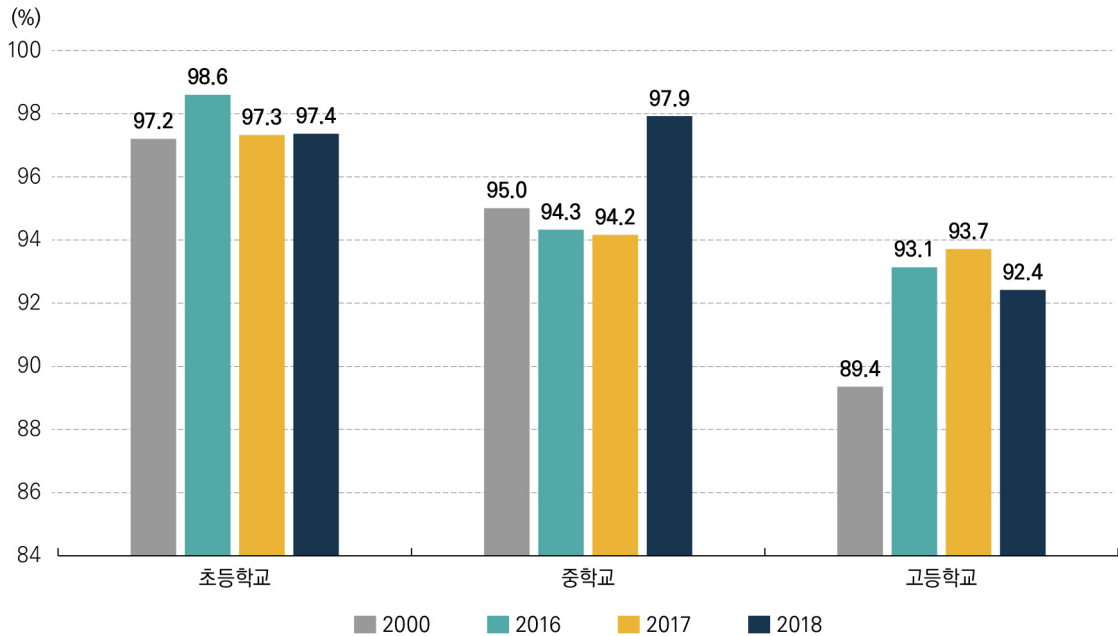
SDG4.1에서는 글로벌 및 주제별 지표로 학습성과 측면에서 ① 초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초등학교 졸업학년, 중학교 졸업학년에서의 읽기와 수학에서의 최소 숙달 기준 달성 아동 및 청소년 비율(글로벌 지표), ② 초등학교 2~3학년 및 초등교육 졸업 시점, 중학교 졸업 시점에서의 국가 학습 평가 여부 등을 삼고 있으며, 교육이수 측면에서 ③ 최종학년 진급률(초등, 전기중등), ④ 이수율(초등, 전기중등), 교육참여 측면에서 ⑤ 학교 밖 아동·청소년 비율(초등, 전기중등, 후기 중등), ⑥ 졸업 과연령 아동 비율(초등, 전기중등), 교육제공 측면에서 ⑦ 법이 보장하는 무상/의무 초등 및 전기중등교육 년 수 등을 설정하고 국제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자 하고 있다.

이행현황

한국은 PISA, TIMSS 등과 같은 국제비교 학력평가에서는 평균적으로 높은 성취수준을 보여 왔다. 교육이수 측면에서도 높은 취학률(초 : 97.4%, 중 : 97.9%, 고 : 92.4%)과 진학률(초→중 : 100.0%, 중→고 : 99.7%), 낮은 학업중단율(초 : 0.6%, 중 : 0.7%, 고 : 1.5%)을 보이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8a). 교육제공 측면에서는 초등교육 단계와 전기 중등교육 단계에서 무상 및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K-SDGs에서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교 안팎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모든 학생들이 일정수준 이상의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초학력 진단·보정 기능을 강화하여 과학적 분석에 의한 학습 부진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로는 학업성취도 국제평가에서 최소 숙달 수준 학생의 비율, 국가 차원의 학습 성과 지표 산출 등을 설정하였다. 이는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의 지속적인 참여 및 결과 분석을 통해 세계교육 동향을 반영한 우리나라 교육의 성과 분석 및 질을 제고하며, 국가 차원의 학습 성과 지표를 산출함으로써 학생의 학업 수준 뿐 아니라 정의적 특성도 함께 모니터링하기 위함이다.

이 외에도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후기중등교육에 있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 그림 7 | 교육단계별 취학률(2000, 2016, 2017, 2018)

* 출처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a:11)

■ 향후 과제

한국의 경우 국제적으로 비교적 높은 학업성취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의 국제비교 성취도평가에서는 과거에 비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떨어지고 있으며, 저성취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과학에 대한 태도 등 정의적 영역이 여전히 학업성취도 수준에 비해 낮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학습 성과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반적인 교육체제에 대한 모니터링은 우수하지만 장애, 다문화, 저소득층, 농산어촌 학생 등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정보는 다소 부족한 편이다. 이들에 대한 교육기회의 접근과 보장, 교육의 이수, 학습 성과 진단 등을 위한 모니터링과 이들의 학습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이 성공적인 삶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학교교육에서 함양될 수 있도록 국가 교육과정 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질 점검이 필요하다(조지민, 2018).

전반적으로, 한국은 우수한 초·중등교육의 학습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체제를 갖추고 있다. 학생들에 대한 객관적인 학습 성과 모니터링은 초·중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확한 과학적 진단과 이를 토대로 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 교육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수

적이다. 특히, 초등교육의 경우 2012년 이후 국가수준의 학습성과 평가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교육과정 수행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후기 중등교육에 있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1/3 정도가 의무교육(강영혜, 2013)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도 고교 무상·의무교육에 대한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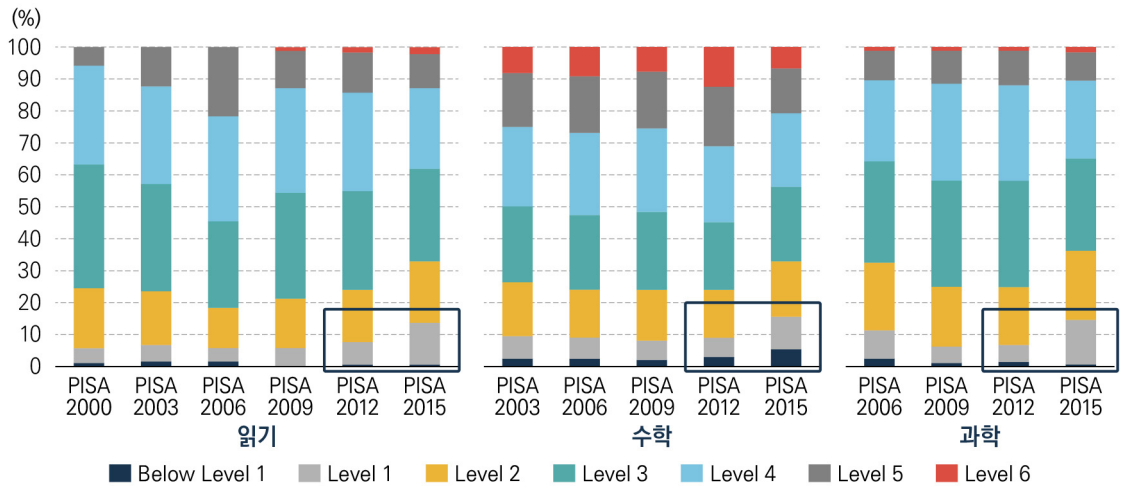


그림 8 | OECD 국가의 PISA 영역별 성취 수준에 대한 학생 비율 추이

* 출처 : 교육부(2016b:6)

2 4.2. 영유아교육·보육

세부목표와 지표

SDG4.2 goal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영유아 발달 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접근하여 초등교육을 준비		
구분	SDG4.2 indicators	비고
초등 교육 준비도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특성의 측면에서 발달 정도가 정상적인 5세 미만 아동의 비율(성별)	K-SDGs 중점 지표
참여	정규 초등학교 입학연령 전 1년 동안 체계화된 학습 참여 비율(성별)	K-SDGs 중점 지표
초등 교육 준비도	긍정적, 고무적 가정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한 5세 이하 아동 비율	K-SDGs 중점 지표

구분	SDG4.2 indicators	비고
참여	유아교육·보육 총 취학률	-
제공	법적으로 보장하는 (i) 무상 (ii) 의무 유아교육 연수	-
참여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K-SDGs 신규 지표

※ 굵은 글씨는 글로벌 지표이며, < >안은 K-SDGs 지표임.
단, 글로벌 지표와 K-SDGs 지표가 일치하는 경우 괄호는 생략하고 비교란에만 표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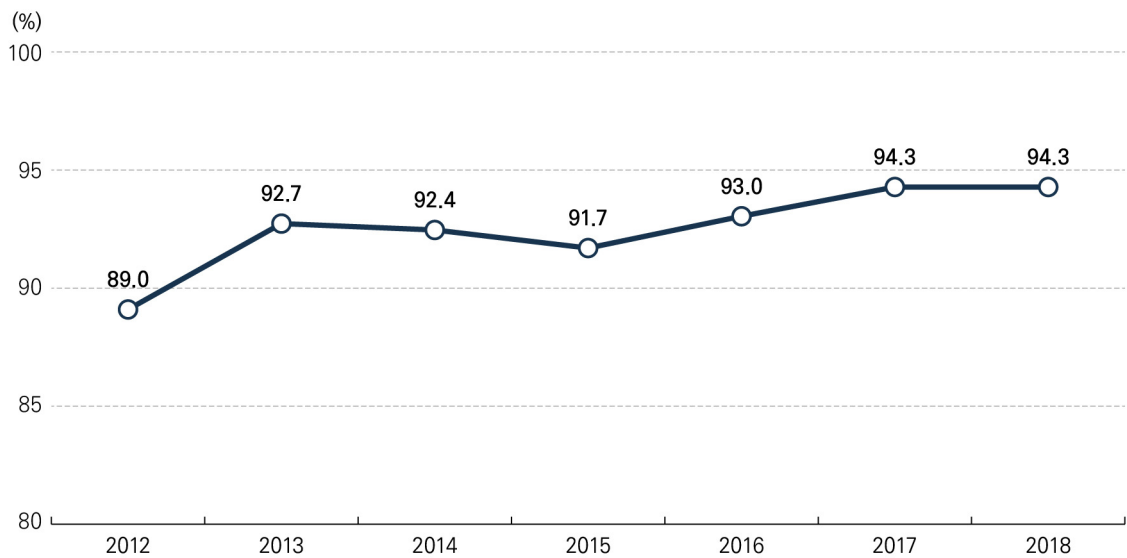
SDG4.2에서 영유아교육 및 보육은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영유아 발달 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접근하여 초등교육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 15년간 영유아교육·보육은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의 첫 번째 목표로 다루어지며 영유아 사망률 감소, 취학 전 교육기관 등록률 증가 등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8). 그러나 여전히 4명 중 1명의 영유아는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부진 상태이며, 상당수의 개도국, 일부 아랍 및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저조한 유아 취학률을 보이는 등 EFA 영유아교육·보육 목표는 사실상 달성되지 못하였다(Hayashikawa, 2015). 이에 SDG4.2는 영유아교육·보육의 중요성을 재강조하고 있으며, 단순한 교육기회 제공(equality)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 형평성(equity) 보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8b)

SDG4.2에서는 글로벌 및 주제별 지표로 ①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특성의 측면에서 발달 정도가 정상적인 5세 미만 아동의 (성별)비율(글로벌 지표), ② 정규 초등학교 입학연령 전 1년 동안 체계화된 학습 참여 (성별)비율(글로벌 지표), ③ 긍정적, 고무적 가정 학습 환경을 경험한 5세 이하 아동 비율, ④ 유아교육 총 취학률, ⑤ 법이 보장하는 무상, 의무 유아교육 연수 등을 설정하고 국제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자 하고 있다.

K-SDGs에서는 SDG4.2의 글로벌·주제별 지표 중 “긍정적인 가정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을 중점지표로 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의 맥락을 반영하여 국가지표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을 정하였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최근 정책 기조가 반영된 지표로써,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사립유치원 및 민간 어린이집 이용률 및 이에 따른 높은 민간(부모)비용부담 등 한국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현 정부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적정 학습시간 법제화를 통한 유아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포함하고 있어 SDG4.2에서 강조하는 영유아의 “신체적 건강, 학습 및 사회심리적 안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 중에 있다.

이행 현황

2012년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우리나라는 모든 5세아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을 달성하였고, 2013년에는 모든 3세아와 4세아로 누리과정을 전면 확대하였다. 이에 3-5세아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원율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90.0%를 상회하고 있다(3세아 92.5%, 4세아 93.7%, 5세아 96.6%, 교육통계 2018 및 보육통계 2018). 또한, 2015년부터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우리나라 투자는 GDP 대비 1%를 달성하였다. 이는 OECD 전체 평균 0.8% 보다 높은 수치이다(OECD, 2017b).



【그림 9】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원율(2012~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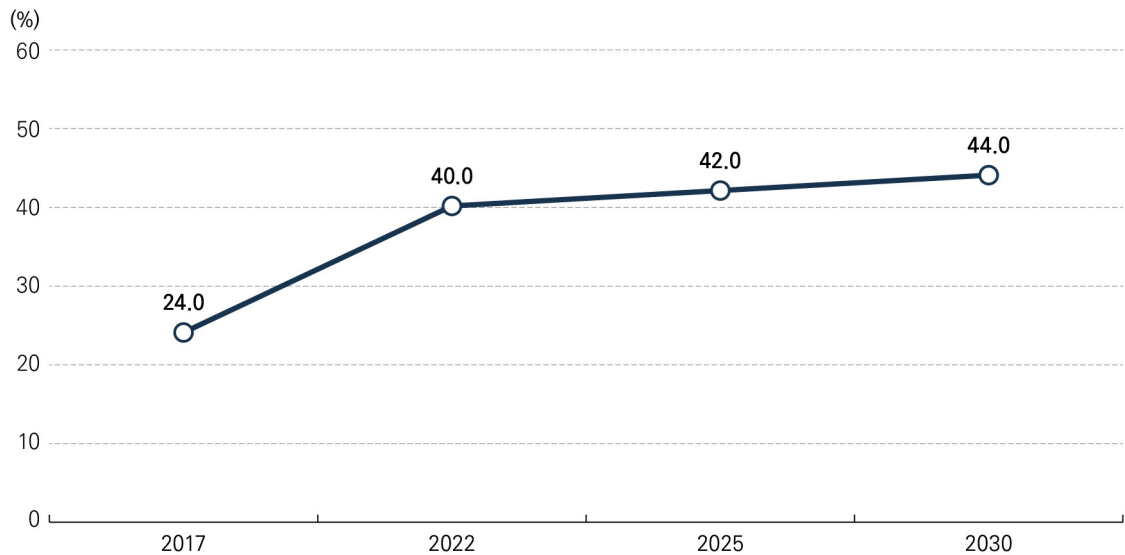
출처 : 1. 유치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해당 연도). 교육통계연보(교육기본통계)
2. 어린이집: 보건복지부(해당 연도). 보육통계(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절반 수준의 누리과정 지원금, 부모 부담의 방과 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및 특별활동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에 대한 부모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달리 우리나라는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이용률이 약 76%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이에 누리과정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영유아대상 과도한 사교육, 획일적·교사주도적 누리과정 운영,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 미흡, 이원화된 유아교육-보육 체제로 인한 기관 간 서비스 및 교원 등의 질적 격차도 지속적 지적되고 있다.

■ 향후 과제

K-SDG4.2 국내 이행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먼저, 모든 영유아의 교육·보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모든 영유아에게 우수하고 균등한 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소외계층 가정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모든 영유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소외계층 가정은 저소득층, 한부모 등의 가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가정일지라도 다방면에서 자녀 양육(학습 포함)에 도움이 필요한 ‘양육 취약가정’을 의미한다. 소외계층 영유아 및 가정을 진단하고 이들의 가정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 그림 10 |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2022-2030)

출처 : 교육부 내부자료(2018f:4).

주 :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 (국공립 유치원 취원아수 / 전체 취원아수) × 100

이 외에도 영유아의 과도한 사교육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영유아의 학습시간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김은영 외, 2017; 이정림 외 2015), 이는 SDG4.2에서 강조하는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안녕”에 대한 차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 정부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국정과제의 하나로 “적정 학습시간 법제화를 통한 유아중

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선정하였고, 교육부의 SDG4.2 이행계획에도 “참여와 소통, 개방과 협력, 공감과 지원의 교육문화로 개선”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지표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확한 측정과 모니터링을 위해 “영유아의 건강, 학습 및 사회심리적 안녕”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측정 방법 및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창의성과 사회성을 갖춘 영유아교육·보육 확산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창의성과 사회성을 갖춘 유아교육을 확산하려는 체계적·종합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3 4.3.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

■ 세부목표와 지표

SDG4.3 goal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		
구분	SDG4.3 indicators	비고
참여	지난 12개월 동안 형식 및 비형식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 (성별)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	K-SDGs 중점 지표
	고등교육 총 취학률 <고등교육 이수율>	K-SDGs 중점 지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비율(15-24세)	
정책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민간부담 비율>	K-SDGs 신규 지표

※ 굵은 글씨는 글로벌 지표이며, < >안은 K-SDGs 지표임.
단, 글로벌 지표와 K-SDGs 지표가 일치하는 경우 괄호는 생략하고 비교란에만 표기함.

SDG4.3은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①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기회의 보장, ② 교육의 질 보장, ③ 평생학습 기회의 증진을 포함함으로써, 기존의 공교육 영역에서 초등교육의 기회 보장을 통한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MDGs나 초등교육의 무상 의무화와 중등교육에의 진입(취학률)에 초점을 두었던 EFA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으로 이번 SDG4에 새롭게 채택된 목표이다.

과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에 초점

을 두고, 그러한 맥락에서 기초교육의 제공과 초등교육의 확대가 교육영역에서 논의의 주가 되어왔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c). 그러나 SDGs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보편적 개발목표(한국행정연구원, 2017)로 SDG4에서도 모든 교육단계의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의 고도화, 기대수명의 증가 등 사회의 변화로 초·중등교육에 이어 고등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SDG4.3은 성인들의 고등교육 기관으로의 접근성 등이 강조되는 이러한 최근 흐름을 반영한 목표라고 볼 수 있다.

SDG4.3에서는 글로벌 및 주제별 지표로 ① 지난 12개월 동안 형식 및 비형식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의 (성별)비율(글로벌 지표), ② 고등교육 총 취학률, ③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참여 비율(15-24세) 등을 설정하고 국제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SDG4.3의 세부목표에 맞춰 K-SDGS4.3의 국내 중점 지표로 ① 고등교육 기관에서 성인 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 ② 고등교육 이수율(%), ③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민간부담 비율을 설정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참여 특성과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방식의 한계, 고등교육 이수율에서의 세대 간 격차,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낮은 정부의 투자수준과 높은 민간부담 의존 등 고등교육 참여에의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고, 공공재원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유도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함이다.

■ 이행 현황

한국의 고등교육 순취학률은 2018년 현재 67.6%로 고등교육의 보편화 단계에 있다. 한국은 2018년 현재 고등교육기관 중에서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비율이 86.5%이며, 전체 학생 중 77.1%가 사립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8d). 한국은 고등교육의 사학의존률이 매우 높은 구조적 특성을 갖고 이례적인 성장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사학의존률이 높은 고등교육 특성에서 높은 진학률은 대학등록금에 대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켰다. 이에 정부는 2010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Income Contingent Loan: ICL)를 도입·시행하였으며,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2017 회계연도 기준 고등교육 예산의 40%가량이 국가장학금에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명목등록금으로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한 체감률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현재의 소득연계 지원방식은 오히려 중간 계층 학생들이 정책수혜의 소외 대상이 되는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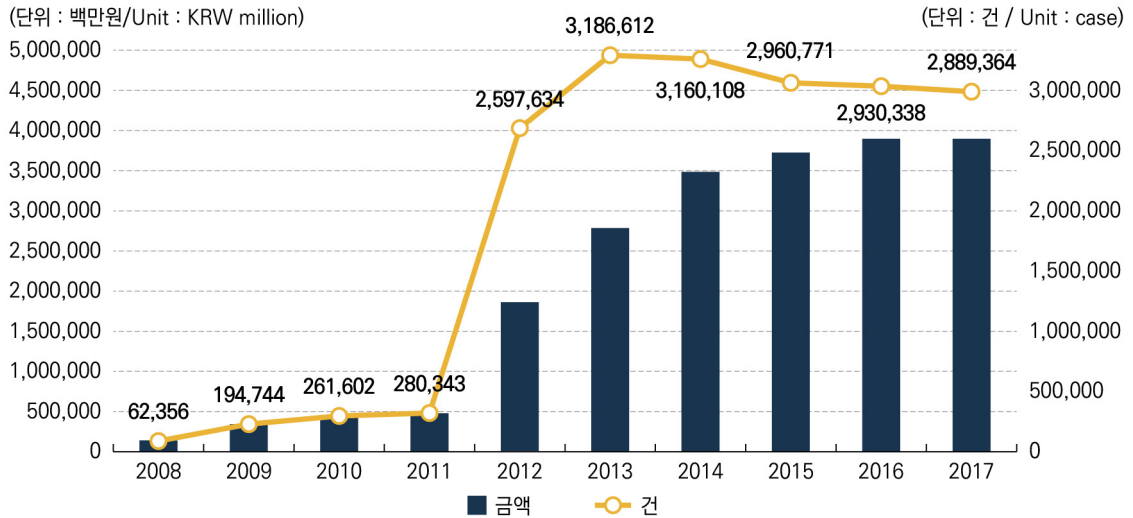


그림 11 | 연도별 장학금지원 추이

출처: 한국장학재단(2018:18-19).

한국은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재원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2008년 전체 고등교육비 중 공공재원 비중은 22.3%이었으나 2015년에는 36.1%로 증가하였다(OECD, 2011; 2018). 그러나 2015년 현재 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0,109로 OECD 평균인 \$15,656의 64.6% 수준에 불과하며, OECD 국가에서 낮은 수준이다. 이는 대학생 한 명에게 투자되는 고등교육 비용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와 교육의 질 제고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즉,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고등교육 재정 확보는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성과 제고를 위한 여건 마련에 필수적이다. 경제적 어려움과 상관없이 능력에 따른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 등 학생복지 차원의 학자금지원제도가 운영됨과 동시에, 학생들이 받는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또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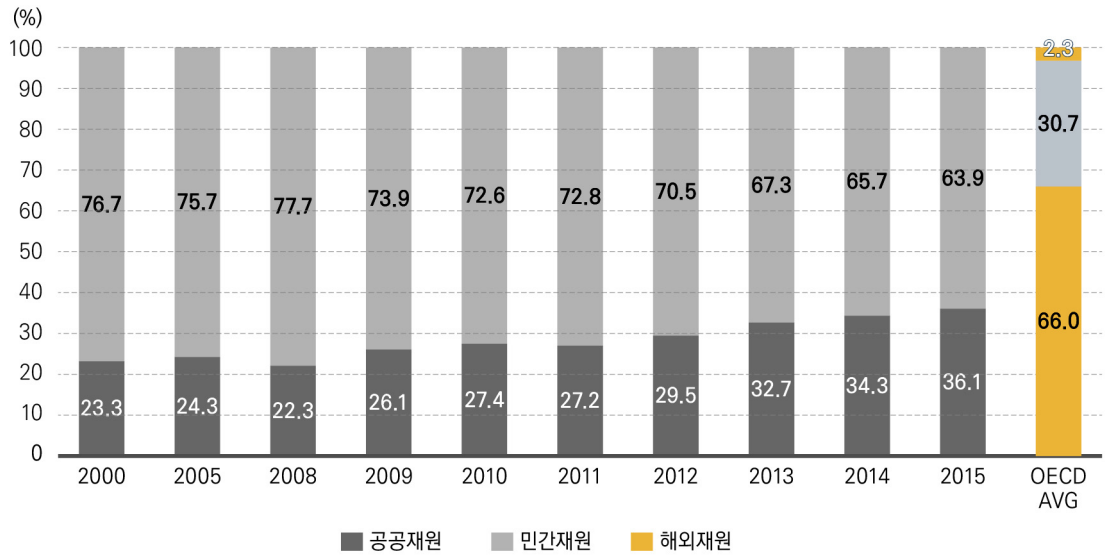


그림 12 | 고등교육단계의 공공 및 민간 자원 비율

출처: OECD stat(해당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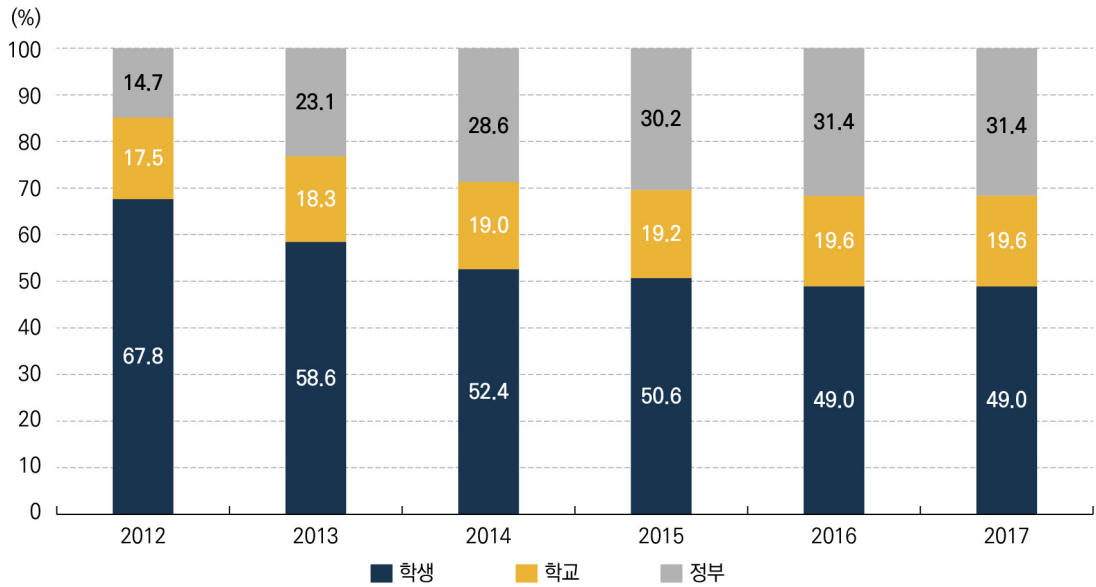


그림 13 | 등록금 부담 비율

출처: 교육부(2018a:1).

한국은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 중에 있다. 한국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17년 기준 48%로 OECD 평균(38%)보다 높지만 세대 간 격차가 큰 편이다. 청년층(25~34세)은 70%로 OECD 최고 수준(OECD, 2018)이지만, 5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18%(2015년 기준)로 OECD 평균(26%)에 못 미친다(OECD, 2016). 또한 성인(만25세~64세)의 평생교육 참여율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낮다. 2018년 기준 만25~34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52%인 반면, 만55세~64세는 34.8%로 나타난다. 이러한 세대 간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8년에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18~'22)」(교육부, 2018e)을 발표하여,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성인친화적 교육 제공 강화'와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의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평생학습 기반 지역사회의 미래가치 창출 지원을 위해 '지역대학과 연계한 시민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8 | 고등교육 이수율

(단위: %)

구분	25세~64세		25세~34세		55세~64세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2017년	48.0	38.0	70.0	44.0	-	-
2016년	47.0	37.0	70.0	43.0	-	-
2015년	45.0	35.0	69.0	42.0	18.0	26.0
2010년	40.0	30.0	65.0	37.0	13.0	22.0
2005년	32.0	26.0	51.0	32.0	10.0	19.0
2000년	24.0	22.0	37.0	26.0	9.0	15.0

주. 조사대상: 25~64세 연령 인구, 연도는 조사 기준년도임.

출처: OECD stat(해당 연도).

표 9 |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단위: %)

구분	2007	201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29.8	30.5	30.2	36.8	40.6	35.7	35.8	42.8	
연령	25-34	36.3	37.3	35.9	43.5	48.0	46.6	41.8	52.0
	35-44	29.2	33.1	31.9	38.9	42.2	39.1	39.2	44.1
	45-54	26.5	25.2	26.3	33.1	37.3	31.6	34.0	41.8
	55-64	23.9	21.2	25.4	29.2	32.1	26.5	28.9	34.8

* 출처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b:134)

■ 향후 과제

양질의 고등교육에 대한 성인의 교육기회를 증대하기 위하여 진입 경로를 다양화하고, 고등교육 수요자 층 확대를 통해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격차를 완화하며, 변화하는 사회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학령기 대학생만을 위한 대학교육에서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까지로 확대하여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으로 입학기회 증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위 고등교육 과정과 더불어 다양한 비학위 고등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성인학습자의 양질의 고등교육 접근 및 다양한 이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개발하고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에 있는 성인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지원하기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민간재원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의 국가 장학금을 비롯한 학자금지원사업과 함께 고등교육기관의 높은 명목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의 학자금지원 정책은 저소득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산층 이하 가정까지도 학비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 단가를 인상하여 등록금 절반 이상에 대해 지원을 받는 수혜자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재원의 의존율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등교육 공공재원 확보가 절실하다.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위한 유연한 교육과정의 운영, 모든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체제 구축 등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또한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은 졸업 또는 이수 후 직업세계로의 진입으로 이어지므로 고등교육과 노동시장의 미스매칭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진로적성 및 직업흥미 등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진로지도가 초·중등교육단계부터 고등교육 단계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등교육은 학생들이 현재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역량 뿐 아니라 미래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미래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4.4. 직무 스킬

세부목표와 지표

SDG4.4 goal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을 포함하는 적절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린다		
구분	SDG4.4 indicators	K-SDG4.4 세부지표
스킬	ICT 역량을 보유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역량 유형별)	
	디지털 리터러시의 최소 숙달 기준을 달성한 청소년 및 성인 비율	
	연령집단별, 경제활동상황별, 교육 수준별, 프로그램 유형별 청소년/성인의 교육 이수율 <평생학습 참여율>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K-SDGs 중점 지표

※ 굵은 글씨는 글로벌 지표이며, < >안은 K-SDGs 지표임.
단, 글로벌 지표와 K-SDGs 지표가 일치하는 경우 괄호는 생략하고 비교란에만 표기함.

SDG4.4는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을 포함하는 적절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린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글로벌 및 주제별 지표로 스킬의 측면에서 ① ICT 역량을 보유한 청소년 및 성인의 (역량 유형별)비율(글로벌 지표), ② 디지털 리터러시의 최소 숙달기준을 달성한 청소년 및 성인 비율, ③ 연령집단별, 경제활동 상황별, 교육 수준별, 프로그램 유형별 청소년 및 성인의 교육 이수율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및 지표 설정은 미래 노동시장 및 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전문기술 보유자 수를 확대하고, 미래 사회의 핵심역량인 디지털 리터러시¹⁾를 강조한 것이다.

K-SDGs에서는 국가수준의 중점 모니터링 지표로 “평생학습 참여율”과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을 설정하였다. 이는 청소년 및 성인의 전문·직업 기술 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평생교육과 직업교육훈련에 참여를 촉진하고 그 양상을 모니터링 하고자 함이다.

1) 여기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정의하는 “디지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주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소양으로 윤리적 태도를 가지고 디지털 기술을 이해·활용하여 정보의 탐색 및 관리, 창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역량”(이현숙 외, 2019)을 의미한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인 ICT 리터러시에서 나아가 문제를 분석하고 전략적 문제해결 방안을 구안할 수 있는 컴퓨팅 사고력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이다.

이행 현황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 참여율은 그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18년 한국의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42.8%이나 직업관련 평생학습 참여율은 21.2%에 불과하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8b).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은 주로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후기중등 단계에서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 특화 고등교육기관으로 폴리텍과 한국기술교육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교육 단계의 직업교육훈련으로 일학습병행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령기 이후 성인학습자 대상으로는 사업주훈련지원이나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재직자와 실업자 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후기 중등과 고등 단계의 일학습병행제 등은 교육부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등의 여러 부처가 직업능력개발 및 인력양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직업교육훈련이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 지역이나 산업 등의 현장 수요를 적극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 직업교육훈련의 재원이 대부분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실업자나 경력단절 여성,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 사업주 요구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학습휴가제의 도입이나 실업자와 재직자에 대한 지원 체계의 통합 등 직업교육훈련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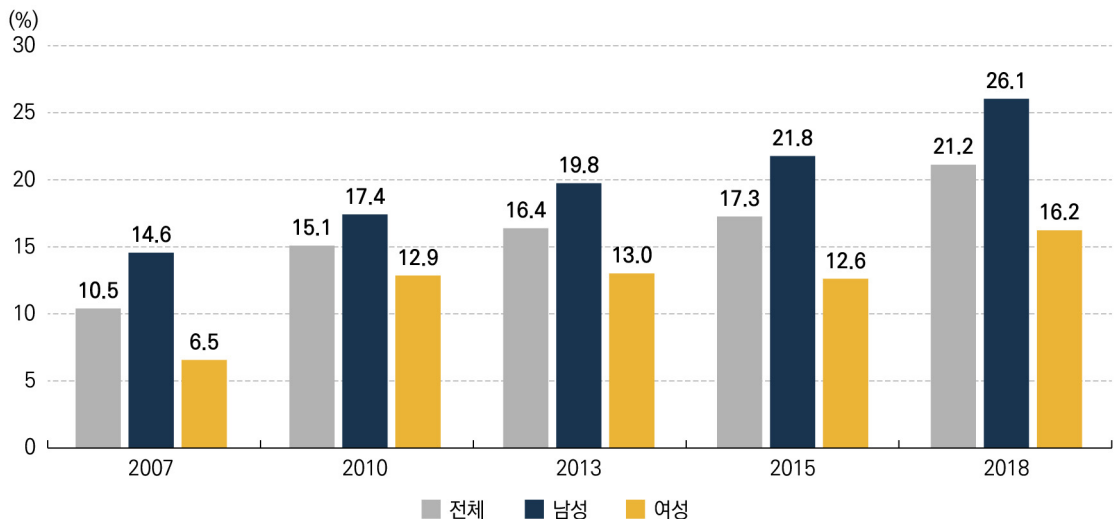


그림 14 | 성별 직업 관련 평생학습 참여율

출처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b:30).

OECD와 주요 선진국에서는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조하고 있다. 측정방법의 문제로 K-SDG 세부지표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한국에서도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ICT 관련 교과를 필수 과목으로 전환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듯이, 한국에서도 2015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제컴퓨터정보소양연구(ICILS)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등 국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성취 수준은 높으나, 활용 및 태도 등에 대한 정의적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ICILS 2013 조사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컴퓨터·정보 소양 성취 수준은 전체 18개국 중 상위권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ICT 활용능력에 대한 자아효능감, 컴퓨터 사용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 학습 목적의 컴퓨터 사용 경험, ICT 과제 학습 경험 등 ICT 활용 및 태도에 대해서는 낮게 나타났다(김수진 외, 2014). 또한 학생들에 대한 ICT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사들의 ICT 활용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인식도 낮게 나타났다. PISA 2015에서도 학교에서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과 사용 빈도 및 태도, 학교의 인프라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앞으로도 국가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 표 10 】 국제컴퓨터정보소양연구(ICILS) 2013 조사 결과

구분	컴퓨터·정보 소양 전체 결과	정의적 특성		컴퓨터 활용 학습 경험		교사들의 ICT 활용에 대한 자아효능감과 인식	학교의 컴퓨터 자원 보유 및 활용 현황	
		ICT 활용 능력에 대한 자아효능감	컴퓨터 사용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	학습 목적 컴퓨터 사용 경험	ICT 과제 학습 경험		학교의 학생용 컴퓨터 보유 현황 (1대당 학생 수)	학생들의 컴퓨터 사용 현황
한국	536	49	46	44	46	53	20	71
ICILS 평균	500	50	50	50	50	50	18	87

※ 출처 : 김수진 외(2014) 재구성.

▣ 향후 과제

평생학습 및 직업교육훈련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는 비형식·무형식 직업교육훈련의 인정 제도가 체계화될 필요가 있으며 고용노동부 뿐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성인의 직업교육훈련이 평생학습의 한 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 점에서 최근 들어 교육부의 평생학습계좌제와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합하려는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의 재원 구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이 주된 재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업자,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나 개별 학습자 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직업교육훈련이 미흡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생학습, 특히 평생직업교육 훈련 참여율이 낮은 집단, 즉 자영업자, 저소득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의 교육훈련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참여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이나 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직업교육훈련이 제공되고 교육훈련 참여가 고용으로 이어지는 경로의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스킬 수요와 공급 현황과 미래 예측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원격훈련(e-Learning)을 비롯하여 최소의 교육훈련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훈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령기의 직업교육훈련에서는 향후 고령화의 일의 세계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하여 직무 특수적 교육 뿐 아니라 직업기초역량의 강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지표는 K-SDG 세부지표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국가차원에서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K-SDG4.4에서는 “ICT 역량을 보유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 “디지털 리터러시의 최소 숙달 기준을 달성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 “연령집단별, 경제활동별, 교육 수준별, 프로그램 유형별 청소년 및 성인의 교육 이수율” 등이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과 측정 문항의 가변성으로 인해 K-SDG 지표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 중 하나가 디지털 리터러시임을 상기할 때 이들 지표들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5 4.5. 형평성²⁾

세부목표와 지표

SDG4.5 goal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양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구분	SDG4.5 indicators	K-SDGs
정책	모든 교육 지표에 대한 형평성 지수 산출(성별, 지역규모, 소득, 장애여부, 토착민 여부, 분쟁 발생 여부 등의 가용 데이터가 있는 경우 세분화) <모든지표에 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분리통계 도입> <취학률> <학업중단율>	K-SDGs key indicator
	초등교육에서 수업 언어가 제1언어 혹은 모국어인 학생 비율	
	명시적 공식 정책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에게 교육자원을 재분배하는 정도	
	교육단계별, 교육재원별, 학생1인당 공교육비	
	저소득 국가에 할당된 총 교육 원조 비율	

※ 굵은 글씨는 글로벌 지표이며, < >안은 K-SDGs 지표임.
 단, 글로벌 지표와 K-SDGs 지표가 일치하는 경우 괄호는 생략하고 비교란에만 표기함.

SDG4.5 형평성의 세부목표는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양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글로벌 지표로는 “① 모든 교육지표에 대한 형평성 지수(성별, 지역규모, 소득, 장애여부, 토착민 여부, 분쟁 발생 여부 등의 가용 데이터가 있는 경우 세분화(글로벌 지표)”이다. 이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이라는 SDG4 목표를 모든 교육단계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세분화된 분리통계를 통해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 외에도 주제별 지표로는 ② 초등교육에서 수업 언어가 제1언어 혹은 모국어인 학생 비율, ③ 명시적 공식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에게 교육자원을 재분배하는 정도, ④ 교육단계별, 교육재원, 학생 1인당 공교육비, ⑤ 저소득 국가에 할당된 총 교육 원조 비율 등을 설정하고 있다.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8)의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현황과 과제 자료집』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수정·보완하였음.

K-SDGs에서도 형평성과 관련한 중점 모니터링 지표는 글로벌 지표와 동일하게 “모든 지표에 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분리 통계” 산출로 정하였다. 여기에 국내 맥락을 고려하여 성별 격차와 함께 다문화 가정의 아동(다문화 학생), 탈북민 아동, 장애인 등 취약집단별 취학률과 학업중단율을 중점 모니터링 지표로 추가하였다.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완전 취학에 근접하고 있고 학업중단율도 매우 낮아 취학률과 학업중단율 지표는 다른 목표에서 모니터링 지표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경우 이들 두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이 목표에서 별도의 지표로 추가하였다.

■ 이행현황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완전 취학에 근접하고 있고 학업중단율도 매우 낮다. 또한 성별 격차도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지역, 소득 등에 따른 각종 지원정책도 비교적 잘 구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이행에서의 성별격차가 아직 존재하며, 다문화 가정 아동, 탈북민 아동, 장애학생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노력이 보다 요구된다.

● 양성평등

전통적으로 교육의 기회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열려져있었으나,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등과 같은 전세계적 노력으로 교육 기회에서의 성평등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한국에서 성별에 따른 교육에의 접근성은, 초등학교는 1970년, 중학교는 1990년, 고등학교는 2000년경부터 여학생의 취학률이 남학생과 동등하거나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여전히 진로선택 및 노동시장 이행에 있어 분리현상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진로선택에 있어 여학생은 여전히 의학계(60.5%), 교육계(59.4%), 인문계(56.2%), 예체능계(54.8%) 비중이 높고, 남학생은 공학계(80.9%), 사회계(55.4%), 자연계(55.4%) 비중이 높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8d).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여성발전기금(Women's Development Fund)으로 이공계 여학생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여성의 이공계 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이공계 진출을 위한 멘토링지원, 이공계 전공 여대생 연구지원,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복귀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은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1987~1991)』에서 처음으로 국가수준의 정책 안에 성평등한 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성별 분리 과목이었던 가정과 기술을 기술가정으로 통합하였으며, 교육과정(educational process) 개발지침에 남녀 역할에 대한 편견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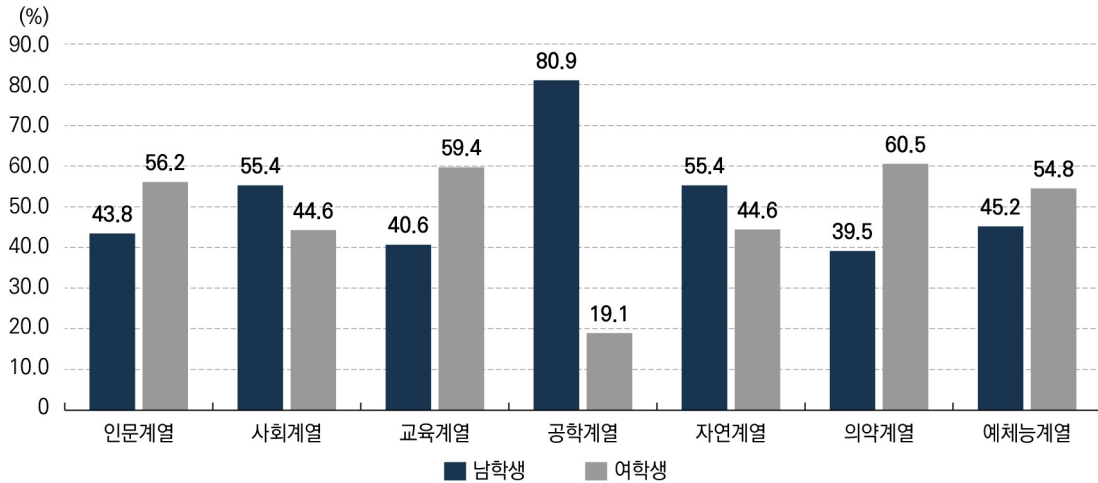


그림 15 | 대학 내 계열별 성별 비율(2018년 기준)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18d). 재구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내 양성평등 문제는 양적 평등에 비해 질적 평등, 특히 의식과 가치 측면에서 보다 심각하다.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6.0%의 여성 청소년이 현 사회를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반면, 동일한 생각을 가진 남성 청소년은 32.1%에 불과하였다(최유진 외,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절반 이상은 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최유진 외, 2016).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는 매우 한정적 수준과 범위에서 양성평등교육이 다루어지고, 범교과학습에서도 제외되어 있다(최운정, 2018). 교육적 차원에서 자라나는 세대의 성평등 의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간과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스톨미투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학교 내에서의 성희롱과 성차별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된 바 있다. 이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구성원들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다문화

우리나라에서 전체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다문화 학생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문화 학생은 최근 5년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여 2018년에는 12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2018년 기준 다문화 학생은 총 122,212명으로 전체 학생 대비 2.2%

를 차지한다(교육부, 2019). 2018년 기준 다문화 학생의 취학률은 초등학교 98.1%, 중학교 92.8%, 고등학교 87.9%, 고등교육기관 49.6%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취학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내국인 학생들과의 격차도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크게 나타난다(최윤정 외,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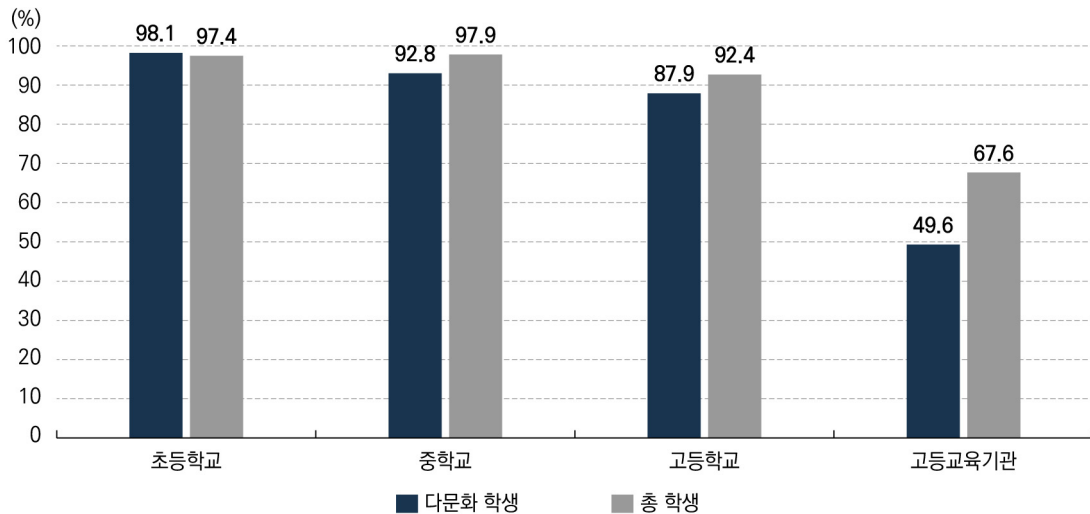


그림 16 | 다문화가구 자녀의 학교급별 취학률

출처: 최윤정 외(2019:49)

다문화 학생들 중 상당수는 매우 어려운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 또는 외국인노동자가정의 자녀들은 언어능력 부족으로 학습부진, 정체성의 혼란, 집단따돌림을 경험하여 정서적 혼란을 겪기도 한다(조용달 외, 2006; 이정금, 2018에서 재인용). 특히, 중도입국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도 및 한국어 사용능력은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들에 비해 낮다(감사원, 2018). 다문화 학생의 경우 학습부진을 경험하는 학생이 많다. 주된 이유는 ‘한국어 능력 부족’, ‘학습 이해 능력 미흡’, ‘가정내 문제’, ‘문화적 경험차이’ 등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최근 다문화 학생의 ‘부적응 관련’ 학업중단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교육부, 2019), 여전히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은 차별이나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최윤정 외, 2019).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학교폭력을 경험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8.2%로 2015년 지난 조사에 비해 3.2%p 증가했으며, 지난 1년간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9.2%로 2.3%p 증가했다(최윤정 외, 2019).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다문화가정지원 및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이정금, 2018). 여성가족부

는 매년 다문화 가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최근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하여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다문화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매년 지원계획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은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다양한 다문화학생의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19). 또한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반학교 안에 특별학급 형태의 한국어학급을 설치하고(2019년 222학급 예정), 입국 초기 중도입국·외국인학생(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집중교육하여 학생들의 기초학습과 학교적응을 지원하고 있다(교육부, 2019).

● 탈북청소년

국내 이주민 중 탈북청소년은 국내의 특수한 맥락과 수요를 반영하는 취약집단이다. 탈북청소년이란 부모 중 최소한 한 명이 북한 출신으로 북한 혹은 제3국에서 출생한 후 한국으로 입국한 만 6-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이들은 북한에서의 교육 경험, 탈북과정에서의 학습 공백 기간, 개인적 특성,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초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양질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해야 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지원을 통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기회와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고입 및 대입 특별전형제도,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탈북학생은 남북한 교육과정과 내용의 차이, 탈북과정의 학습 공백, 심리정서적 문제, 또래 친구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학습 부진 및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은 2018년 현재 초등학교 0.7%, 중학교 2.9%, 고등학교 4.8%로 일반학생에 비해 높은 편이다(교육부, 2018c). 특히, 제3국 출생 탈북학생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출생하여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언어 적응, 학교 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 장애인

장애인의 교육기회 보장과 적절한 교육에의 접근을 위한 국내·외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으며, 양질의 학교교육 및 직업교육에 대한 법적, 사회적, 교육적 기회 및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고등교육단계로의 진학과 취업에 있어서의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전공과, 전문대학, 대학)으로의 진학률은 49.3% 수준이지만, 진학자 중 65.7%는 특수학교에 설치된 전문기술교육과정인 전공과로 진학하고 있다(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 2019). 또한 장애학생의 취업률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21.7%이고, 전공과 졸업생의 취업률도 45.4%에 불과하다(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 2019).

고등교육 이전 단계에서도 장애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2017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0.6%, 중학교 0.7%, 고등학교 1.5%이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8c). 고등교육 이전 단계에서 정서 및 신체장애, 학습장애 등이 학업중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장애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윤철경 외, 2014). 또한 장애학생들의 28.6%가 취학유예 및 유예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교육부, 2018d). 향후 장애학생들의 학업중단 실태와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들의 학업연속성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향후 과제

● 양성평등

한국은 초중등교육에의 접근성에서는 이미 양성평등을 달성하였고, 질적인 평등을 위해서도 꾸준히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실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공 선택에서의 성별 분리가 유지되고 있다. 대학에서의 전공은 일자리와 직결되므로 직종 간의 성별 분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학생의 전공 다양화가 중요하다. 여학생들의 공학분야 진출을 독려하고, 진출에 장애가 되는 요인 등을 파악하여 장벽을 낮추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향후 한국교육에서는 성평등의 양적 측면과 더불어 질적 측면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에 대한 편견 없이 직업과 진로를 선택하며, 성인지적인 시각과 관점을 가진 의식을 가진 인간을 길러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다문화

다문화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다문화 학생의 취학률을 제고하고 학업중단율을 낮추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들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학습부진과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한국어교육 제공 등의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학습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는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가정 학생의 편·입학 시, 한국어

학급에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여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어학급은 일반학교 내 특별학급 형태로 정규 교육과정인 한국어(KSL) 교육과정에 따라 전담교원 또는 한국어강사를 배치하여 한국어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들 학생의 학교생활 조시 적응을 위해 이를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업 중단 다문화 학생과 공교육제도 밖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다문화 학생 중 중도입국 청소년 비율은 6.8%이다(교육부, 2019). 또한 국내 난민 등의 증가로 공교육 제도 밖 아동에 대한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난민 등 학령 증명이 어려운 다문화 학생의 경우 서류가 불충분하더라도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학력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교육부, 2019). 아울러 다문화학생 특성을 고려한 진로진학·전문상담을 위한 담당교원 연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의 진학·졸업에 대비한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시·도교육청별로 마련하고 있다.

다문화 학생의 학습기회나 성취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최근 발표된 20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과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증가하였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구성원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해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강화하는 등 학교 내 다문화학생의 폭력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 탈북학생

탈북민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우선 정착기 일반학교 통합교육을 기본방향으로 다양한 수준의 대안적 학습방법과 교육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사회경제적 격차에 의한 교육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탈북청소년에게 무료 초·중등 교육 및 고등교육의 특례입학과 학비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학교 진입과 적응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장애요소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탈북학생들은 일반학생에 비해 중도탈락률이 높는데, 이들이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성장·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교육부, 2016a).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사 멘토링, 학습지도, 심리상담, 진로·직업교육의 내실화, 그리고 지도교원의 양성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북한 출생 및 제3국 출생 학생의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해 통일전담교육사 배치 확대 및 이중언어강사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탈북학생을 위한 특성화학교, 인가대안학교는 학령 초과자, 학교 부적응 등 일반학교에 다닐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전환기 교육, 대안 교육으로 특화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 장애인

장애를 지닌 학생들의 교육 및 직업기회 향상을 위해서는 각 교육단계별 교육과정과 관련서비스의 내실화를 비롯하여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2018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에서 ① 고등학교과정 졸업 장애인들의 대학 진학률과 취업률 제고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과 관련서비스의 내실화, ② 지자체에서 특수교육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데 필요한 특수학교·특수학급 신설(지역별 균형과 수요 반영) 및 특수교육 기회 확대, ③ 일반학교(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내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내실화와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담당 교원 및 인력 충원, ④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실화를 통한 조기중재 및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 지원·관리, ⑤ 장애학생 고등교육(대학교육) 지원 내실화 및 학습권 보장, ⑥ 지속적인 특수교육 재정 확충 및 지역 균형적인 특수교육 발전 도모, ⑦ 통합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한 담당교사의 전문성과 책무성 강화, ⑧ 학업중단 또는 취학유예 장애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장애학생들의 진학률, 취업률, 학업중단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학습권 및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제반 교육 및 인프라를 장기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 통계개발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과 이에 따른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취학률, 학업중단을 등 주요 지표에 대한 세부적인 분리통계의 수집이 필요하다.

6 4.6. 문해력 및 수리력

SDG4.6 goal		
2030년까지 남녀불문 모든 청소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구분	SDG4.6 indicators	비고
스킬	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비율(성별)	K-SDGs 중점 지표
	청소년/성인 문해율	K-SDGs 중점 지표
참여	청소년/성인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 굵은 글씨는 글로벌 지표이며, < >안은 K-SDGs 지표임.
단, 글로벌 지표와 K-SDGs 지표가 일치하는 경우 괄호는 생략하고 비교란에만 표기함.

세부목표와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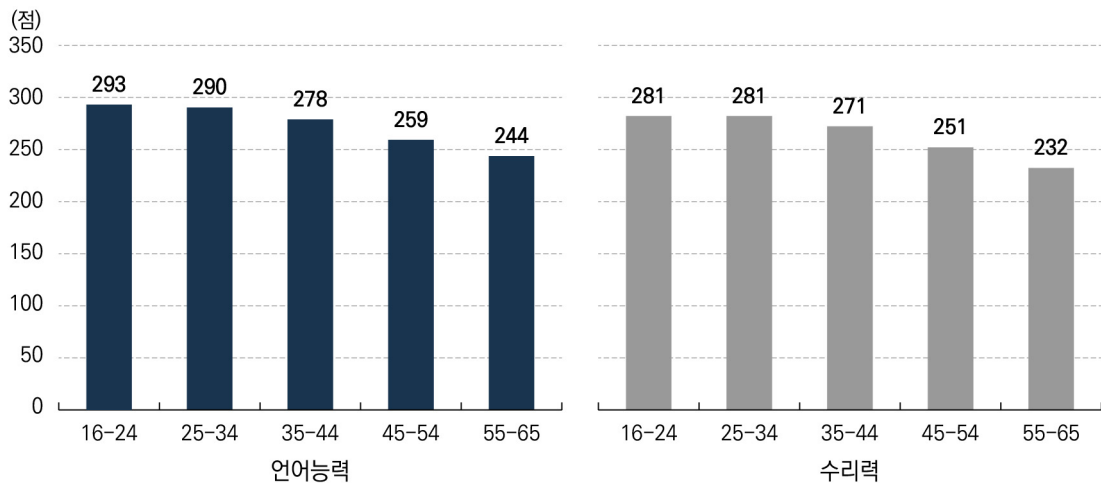
SDG4.6은 “2030년까지 남녀불문 모든 청소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 문해 능력은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고, 지식과 가능성을 개발하며 공동체와 사회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문해는 학습을 위한 기본 인권이기 때문에 비문해자가 공적 학습에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현실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이희수, 2018b).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비문해자 성인 인구는 7억 5천명에 달하고 있어 국제 차원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목표이다(UNESCO, 2017a).

SDG4.6에서는 글로벌 및 주제별 지표로 스킬의 측면에서 ① 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성별)인구비율(글로벌 지표), ② 청소년/성인 문해율, 참여의 측면에서 ③ 청소년/성인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등을 수립하고 국제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K-SDGs에서는 중점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비율(PIAAC)”과 “청소년/성인 문해율(%)”을 정하였다. 이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글로벌 지표를 고려하면서 한국의 상황을 반영한 지표 측정을 통해 국가 교육정책 수립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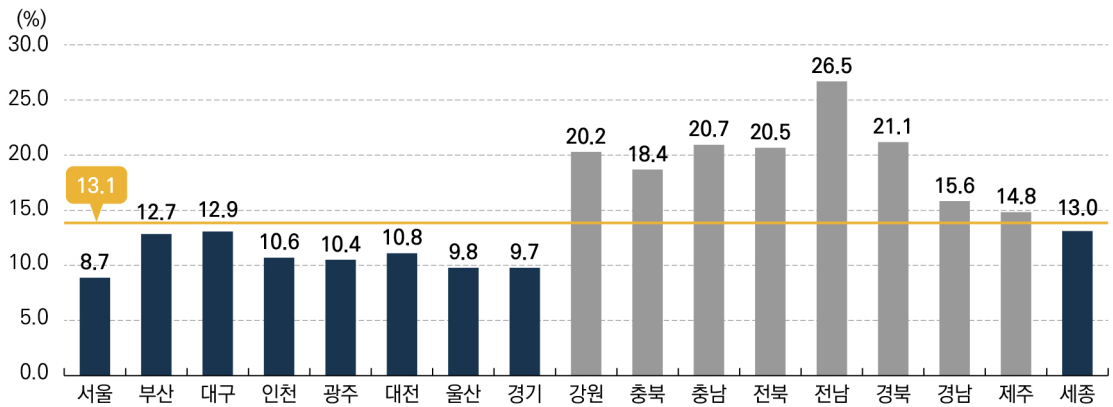
우리나라 성인의 언어능력 및 수리력 특성은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2013)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PIAAC에서 나타난 언어능력의 한국 평균은 273점으로 OECD 평균과 동일하고, 수리력은 263점으로 OECD 평균보다(269점) 다소 낮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16-24세의 언어능력 및 수리력 점수는 최상위 수준이지만 중장년층의 언어능력 및 수리력 점수는 상당히 낮아, 연령별 역량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에 속한다. 또한, 전문대졸 이상의 24세 미만 청년층 가운데 2 수준 이하 능력을 보유한 청년의 비율은 언어능력에서 23.4%, 수리력에서 42%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 역량이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못한 사람의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그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17 ■ 한국 성인의 연령별 언어능력 및 수리력 점수(PIAAC, 2013)

출처 : 교육부·고용노동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42).

2017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전국 성인문해능력조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의 18세 이상 성인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비문해 인구는 약 311만 명(약 7.2%)인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비문해 인구는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도시보다는 농산어촌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인구 중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중학교 학력 미만 성인인구는 517만여 명(약 13.1%)으로 추정되어, 여전히 문해교육 및 기초학력보완교육에 대한 잠재 수요가 상당 수 존재함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5).



【그림 18】 시·도별 성인문해교육 잠재수요자 현황

출처 : 통계청(2015)

이러한 성인문해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문해교육 잠재수요자를 대상으로 문해교육 학습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2006년부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2016년「평생교육법」일부 개정을 통해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도문해교육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가 및 지역 수준의 문해교육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였다. 2017년부터 초등·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및 문해교원의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중이다.

■ 향후 과제

SDG4.6의 국내 이행을 위해 청소년 및 성인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문해율 제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 추진 중에 있다. 2018년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서는 2022년까지 문해교육 누적 학습자를 64만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여러 정책적 접근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정부의 문해교육 관련 정책 추진과 다양한 현장에서의 문해교육 실시를 총괄 지원하는 국가문해교육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시·도 문해교육센터 설치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교육부, 2018b). 또한, 교육 소외지역의 소규모 문해교육 프로그램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개인 학습자 맞춤형 문해교육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교육부, 2018b). 아울러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여 성인문해교육 영역이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 뿐 아니라 일상에 필요한 과학, ICT, 재정, 문화 및 시민문해 역량 등 기초문해영역으로 확장·적응하도록 핵심 영역을 정비하고,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7 4.7.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세부목표와 지표

SDG4.7 goal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보장한다		
구분	SDG4.7 indicators	K-SDGs
제공	성평등과 인권을 포함하는 i)세계시민교육, ii)지속가능발전교육이 (a)국가교육정책, (b)교육과정,(c)교사교육, 그리고 (d)학생평가 등 모든 영역에서의 주류화되어 있는 정도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관련 국가 교육정책 이행〉 〈교육과정 내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요소 포함〉 〈세계시민교육 교수역량강화 교원연수 누적 인원(명)〉	K-SDGs key indicator
	생활양식 기반의 HIV 및 성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비율	
	인권교육에 관한 세계 프로그램이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정도 (UNGA 결의 59/113에 따라)	
지식	세계시민 및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보이는 연령집단(혹은 교육수준)별 학생 비율	
	환경과학 및 지구과학에 관한 숙달된 지식을 보이는 15세 학생 비율	

※ 굵은 글씨는 글로벌 지표이며, 〈 〉안은 K-SDGs 지표임.

단, 글로벌 지표와 K-SDGs 지표가 일치하는 경우 괄호는 생략하고 비교란에만 표기함.

세계시민교육은 영유아기부터 모든 교육단계와 연령대를 포괄하는 평생교육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을 고루 발달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을 증진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상위 목표와 긴밀한 연결성을 지닌다. SDG4.7에서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는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보장한다”로 삼고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건전한 시민성을 바탕으로 더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길러주는 세계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증진·확산하고자 하는 데 있다(UNESCO, 2015a). 곧 SDG4.7은 SDG4 뿐 아니라 환경-사회-경제 간 조화를 기반으로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SDGs 전체를 이행하는 주요 수단이자,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교

육 전반의 노력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UNESCO, 2015a).

SDG4.7에서는 글로벌 및 주제별 지표로는 교육프로그램 제공 측면에서 ①성평등과 인권을 포함하는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국가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사교육, 그리고 학생 평가 등 모든 영역에서 주류화 되어 있는 정도(글로벌지표), ②생활양식 기반의 HIV 및 성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비율, ③인권교육에 관한 세계 프로그램이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정도, 그리고 지식 측면에서 ④세계시민 및 지속가능성 관한 이슈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보이는 연령 집단(혹은 교육수준)별 학생 비율, ⑤환경과학 및 지구과학에 숙달된 지식을 보이는 15세 학생 비율 등으로 정하고 있다.

K-SDGs에서는 중점 모니터링 지표로 글로벌 지표와 유사하게 ①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관련 국가 교육정책 이행, ②교육과정 내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요소 포함 여부, ③세계시민교육 교수역량강화 교원 연수 누적 인원 등을 설정하였다.

■ 이행 현황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글로벌·다문화 사회로의 진행이 급격히 가속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세계화에 따른 외국인 이주자와 다문화가정의 증가, 인종·민족·문화의 다양성 심화는 단일국가 개념에 기반을 둔 기존의 학교 시민교육의 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양산해 내고 있으며, 21세기 한국 사회의 삶의 질과 깊숙이 관련된 중요한 변화의 양상이 되고 있다(한경구 외, 2015). 또한 남북한 통일 문제, 주변국과의 외교 문제 등으로 인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교육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금융위기, 대량소비 확산, 인간안보 위협 등의 전지구적 위기에서 한국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러한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인식 및 극복 방안 모색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전의 균형 있는 실현을 통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한국 사회에 확산·착근화될 필요성과 더불어, 이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한국은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에서는 정책 결정자들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정책가이드, 2015 개정교육과정과 세계시민교육의 학습주제와 목표를 분석하여 접목한 교수학습가이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자료 등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다.

또한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해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이하 ESD한국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ESD한국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의 전반적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더불어 201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제(이하 ESD 인증제)는 한국 사회에서 이행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 및 훈련 활동을 증진하고, 다양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교육 모델을 공유확산시키고 있다.

■ 향후 과제

SDG4.7에서 다루는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적 모호성과 이에 따른 도전 과제(인식 확산, 실천방안 정립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따라서 이 목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목표가 포괄하는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의 개념적 비교 및 연계성 분석을 통한 개념 명료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가교육정책 및 교육과정 반영과 이를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 및 교재 개발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혁적 교수법, 새로 부상하고 있는 주제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연수프로그램이 보다 많이 개발되어 확산될 필요가 있으며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수학습자료의 개발 및 보급 역시 필요하다.

또한, 공교육 분야 외의 교육 주체들과의 협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학교 현장 밖에서도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 공교육의 현실적·구조적 제약을 고려할 때 이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자료, 프로그램 및 경험을 공교육 분야 주체들(교육청, 학교 등)과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다른 기관/단체들과 함께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UNESCO 통계국(UIS)에서도 SDG4의 11개 글로벌 지표 가운데 4.7.1에 대해서만 검토 및 정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그에 따라 한국 역시 관련 지표의 개발과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해 이 영역의 지표 개발이 조속히 개발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현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을 중심으로 관련 지표 개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경우 기존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구과제로서 『한국형 ESD 평가 지표(Indicator) 연구』(박순용, 2011)가 진행된 바 있다.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지표가 공식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국제 동향을 보다 면밀히 반영한 국내 관련 지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지속가능발전 및 세계시민교육을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은,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미래 교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 육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8 4.a. 학교 환경

세부목표와 지표

goal	
SDG4.a	아동, 장애인, 성차를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
K-SDG4.8	아동, 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개선하고,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

구분	SDG4.8 indicators	K-SDG4.8 indicators
자원	(a) 전기; (b) 교육목적의 인터넷; (c) 교육목적의 컴퓨터; (d) 장애학생을 위해 개조된 기반시설 및 자재들; (e)기초 식수 (f) 성별로 분리되어 있는 기초위생시설; (g)기초 손씻기 시설 (WASH 지표(물, 위생시설, 위생관념) 지표 정의에 따른) 등을 보유한 학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 학교 내진보강율
환경	괴롭힘, 체벌, 희롱, 폭력, 성차별 및 학대를 경험하는 학생 비율	• Wee 클래스 설치 비율
	학생, 교원, 기관 등에 대한 외부공격 발생 수	-

※ 굵은 글씨는 글로벌 지표

SDG4.7부터 4.10은 각 영역별 달성해야 할 목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4.a, 4.b, 4.c는 각 영역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을 갖는 목표이다. 이 중 4.a는 학교 환경에 대

한 것으로, “아동, 장애인, 성차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SDG4.a에서는 이러한 수단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글로벌 및 주제별 지표로 교육 자원에서 ① 전기, 교육목적의 인터넷, 교육목적의 컴퓨터, 장애학습을 위해 개조된 기반시설 및 자재들, 기초 식수, 성별로 분리되어 있는 기초위생시설, (WASH 지표(물, 위생시설, 위생관념) 정의에 따른) 손씻기 시설 등을 보유한 학교 비율과 학습환경 측면에서 ② 괴롭힘, 체벌, 희롱, 폭력, 성차별 및 학대를 경험하는 학생 비율, ③ 학생, 교원, 기관 등에 대한 외부공격 발생 수 등을 정하고 있다.

K-SDGs에서는 국내의 상황을 고려하여, K-SDGs는 4.8의 세부목표를 “아동, 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개선하고,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으로 하였다. 이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로는 첫째,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통합환경이 더 적절한 학생이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의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을 선정하였다. 둘째, 학교시설의 재해·재난 예방 및 학생의 안전 확보 측면에서 학교 내진보강률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목표를 2022년 25%, 2025년 40%, 2030년 100%로 설정하였다(교육부, 2018f). 마지막으로,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지원하여 학교환경과 사회 적응을 돕고, 교육시스템 안에서의 상담과 교육을 통해 학교교육, 정신건강, 학생복지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Wee 클래스 설치 비율을 주요 모니터링 지표로 선정하였으며, 2022년까지 73.7%, 2025년까지 90%, 2030년까지 100%로 목표치를 설정하였다(교육부, 2018f).

■ 이행 현황

● 장애학생 접근성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과 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아동, 장애인, 성차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의 건립과 개선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 장애학생에 대해 “통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초·중등교육법 제59조)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통합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재, 교구”(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1조)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학생의 교육접근성은 낮은 편이다.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시설 건립 및 특수학급이 확대 등이 필요하며, 학교 내 장애학

생들을 위한 시설의 개선도 필요하다. 2018년 현재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초등학교 70.2%, 중학교 56.9%, 고등학교 45.6%이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8c).

● 학교 시설 안전

각종 재난 및 사고의 증가로 학교시설 안전에 대한 중요성 및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비교적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시설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학교안전사고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기본법(2018.3 소관위 상정) 등의 제개정을 통해 안전한 학교시설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 중에 있다. 또한 건축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학교를 비롯한 공공시설의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안전한 학교생활

변화하는 사회와 학교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소외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 OECD에서는 위기청소년을 빈곤, 부모의 양육 및 지도감독 부재, 가출 및 노숙, 학대 및 방임 등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프로젝트)을 통해 적응에 취약한 위기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Wee프로젝트는 Wee클래스(단위학교)-Wee센터-Wee스쿨의 3단계 안전망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위기학생을 발굴, 상담·교육 등을 통해 학교교육, 정신건강, 학생복지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Wee클래스는 6,624개소, Wee센터는 209개소, Wee스쿨은 13개소 운영, 전문상담교사는 2,297명, 전문상담사는 3,681명으로 초·중·고등학교 수 11,909개교에 비추어 볼 때 Wee프로젝트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다.

■ 향후 과제

● 장애학생 접근성

장애학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특수학교의 추가 설립과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의 증설이 필요하다. 다만, 기존 거주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은 지역민원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설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도 일반학교 내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일반 학생과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장애학생 수 대비 적정 학급수를 고려하여 일반학교에서의 특수학급 설치비율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신설된 학교들은 2015년 9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에 따라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급(BF)”을 의무적으로 획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학교들은 시설개선을 통한 BF등급 획득은 어렵기 때문에 장애학생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승강기 설치를 확대해가고 있다. 2층 이상의 건물을 가진 기존 학교의 경우 시설투자를 통해 장애학생의 교육접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학교 시설 안전

학생들의 교육공간에 대한 안전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안전한 수준의 학교건물 등급 비율을 점차로 높여 학교환경의 안전도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내진성능 확보 건물 비율을 점차로 높여 학교건물의 내진 안전성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8년 1월 18일 개정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8조 등에 따라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의 소규모 건물도 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연 2회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법적인 안전점검 절차관리가 강화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산출되는 안전점검 결과 즉,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 또는 내진성능 확보비율 등을 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 안전한 학교생활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강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별 Wee클래스 설치와 지역별 Wee센터 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학생과 학교현장을 이해하는 역량을 갖춘 전문상담교사 및 상담사 배치가 필요하다.

● 스마트학습환경

이 외에도 K-SDGs에서 적절한 측정지표의 부재로 세부목표와 지표에서는 제외되어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학습환경 구축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형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능정보기술 기반 교육의 현장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지능정보기술 기반 교육은 교수-학습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동시에 오프라인 교육의 제한을 받는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교수학습 인프라로 스마트패드 등 모바일기기의 보급과 이를 통한 유연한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초·중·고에 단계별로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의 실질적 활용이 필요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교사의 양성과 일반교사들에 대한 연수 확대, 교육정보화교사의 배치 등이 필요하다.

9 4.b 장학금 / 교육재정

세부목표와 지표

goal		
SDG4.a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선진국과 다른 개발도상국의 직업훈련, ICT, 과학기술 및 공학분야의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학금을 대폭 확대	
K-SDG4.8	포용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한 모든 교육단계에서의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	
구분	SDG4.b indicators	K-SDG4.9 indicators
장학금	장학금 명목의 공적개발원조 규모 (학문 영역 및 분야별)	-
	수혜국에게 수여되는 고등교육 장학금 수	-
교육재정	-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 굵은 글씨는 글로벌 지표

SDG4.b의 글로벌 세부목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군소 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선진국과 다른 개발도상국의 직업훈련, ICT, 과학기술 및 공학분야의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 및 공학분야 전문인력 육성 목적의 고등교육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SDG4.b에서는 글로벌 및 주제별 지표로 ① 장학금 명목의 공적개발원조 규모(학문 영역 및 분야별)(글로벌 지표)와 ② 수혜국에게 수여되는 고등교육 장학금 수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SDG4.b의 글로벌 세부목표와 지표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개도국의 고급 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국내 이행 또는 국가수준의 모니터링 목표와 지표로는 적절하지 않다. K-SDG4.9에서는 국가수준의 모니터링 차원에서 국내에서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측면에서 해당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였다. 즉, K-SDG4.9에서는 그 목표를 “포용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한 모든 교육단계에서의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로 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GDP 대비 고등교육 고교육비 정부 부담 비율을 그 모니터링 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 이행 현황

글로벌 세부목표 이행 측면에서는, 한국은 교육부의 글로벌코리아스칼라십 사업(Global Korea Scholarship, GKS)과 코이카 주도의 분야별 석사과정 지원 사업을 통해 개도국 대상 고등교육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GKS 사업은 고등교육 단계에서 저개발 국가 출신 유학생의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ODA 사업으로 전체 교육부 ODA 예산의 60%를 차지하며,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지원, 외국인우수교환학생지원, 외국인우수자비 유학생지원, 주요국가학생연수, ASEAN국가우수이공계대학생 초청연수, 아프리카·중남미대학생초청연수'의 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GKS 사업은 처음부터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기획된 것이 아니다. 또한 유학생의 선발이나 취학할 대학 및 학과 선정이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고, 유학생에 대한 관리 책임도 개별 대학이 갖고 있어 ODA 사업으로서 협력분야를 특정하거나 유학생을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안해정 외, 2016). 코이카의 석사과정 지원 사업은 국내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특정한 분야의 석사과정을 개설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ODA 정책과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안해정 외, 2016). 하지만 영어로 제공되는 특별 강좌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국내 이행 측면에서는, 정부에서는 단기적으로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대학의 자율성 및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3개 유형(국립대학,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 4개 사업(국립대학 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으로 재구조화하였으며, 대학의 건학이념과 특성, 강점분야 등을 살려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교육부, 2018f). 중장기적으로는 일반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고등교육 정부 재정지원 규모를 2030년까지 OECD 수준(GDP 대비 1.1%)으로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교육부, 2018f).

이 외에도 정부에서는 고등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입학금 폐지, 학자금 대출,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대학생 주거비 감면, 파란사다리 사업(취약계층 대학생의 해외연수 기회 제공)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박성호 외, 2018).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위하여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절대수준을 높이고, 고등교육 공교육비에 대한 높은 민간부담 의존율을 낮추며, 고등교육비의 공부담 비율을 높이는 등 고등교육 재정

규모의 확대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향후 과제

글로벌 목표 이행 차원에서는, 앞으로 고등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장학금 확대라는 실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학금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여러 형태의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안해정 외, 2016). 또한 개도국 유학생이 한국 유학을 통해 전문성을 신장하고, 궁극적으로 개도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선발부터 귀국 이후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 방안도 필요하다(안해정 외, 2016).

국가지속발전목표(K-SDGs)와 관련해서는, 고등교육의 실질적인 기회 확대를 위하여 입학에 있어 기회균등 뿐 아니라 고등교육을 지속하기 위한 비용 부담 경감도 필요하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은 0.7%(최종재원 기준)이며, 고등교육비 지출은 공공부담 비율이 36.1%로 OECD 국가 평균 66.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OECD, 2018). 또한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수준도 OECD 평균의 59.3%(2014년 기준)에 불과하며(OECD, 2017a). 대학등록금의 가계 부담 비율(49%)도 여전히 높은 편이다(교육부, 2018a).

10 4.c 교사

■ 세부목표와 지표

goal		
SDG4.c	2030년까지 교사훈련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사 공급을 대폭 확대	
K-SDG4.10	모든 교육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	
구분	SDG4.c indicators	K-SDG4.10 indicators
훈련/ 양성	유아, 초등, 전기중등, 후기중등 교사 중에서 국가가 요구하는 특정 수준의 수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체계화된 교원교육 및 훈련을 사전에 혹은 재직 중 받은 교사의 비율	-
	교육단계별 학생 대비 훈련된 교사 비율	-
	-	특수교사 1인당 특수학생 수
	-	공립유치원 정규교사 배치 비율

구분	SDG4.c indicators	K-SDG4.10 indicators
	-	초·중등 전문상담 교사 배치 비율
자격	교육 수준 및 기관 유형에 따른 국가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교사 비율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
	교육 수준별, 학생 대비 자격을 갖춘 교사 비율	-
동기	동등한 교육 수준을 요하는 기타 직업과의 상대적 평균 교사 월급	-
	교육 수준별, 교사 감소율	-
지원	연수 유형에 따른 최근 12개월 동안 직무연수를 받은 교사 비율	-

※ 굵은 글씨는 글로벌 지표

SDG4.c의 글로벌 세부목표는 “2030년까지 교사훈련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사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로 정하고 있다. SDGs에서는 전 교육단계에 걸친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의 질 향상이 중요한 목표로 강조되었으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사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FA와 MDGs를 통해 초등교육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많은 개도국에서 교사 수요도 크게 증가했지만 교사의 채용 규모는 수요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개도국에서는 교사부족 문제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있다(안해정 외, 2017). 개도국에서는 교육기회 확대에 따라 필요한 교사의 절대적인 규모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교사의 비율도 높다(안해정 외, 2017).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자격을 갖춘 교사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SDGs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격을 갖춘 교사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교사교육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가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었다.

SDG4.c에서는 글로벌 및 주제별 지표로 교육훈련 측면에서 ① 유아, 초등, 전기중등, 후기 중등 교사 중에서 국가가 요구하는 특정 수준의 수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체계화된 교원 교육 및 훈련을 사전에 혹은 재직 중 받은 교사의 비율(글로벌 지표), ② 교육단계별 학생 대비 훈련된 교사 비율, 자격 측면에서 ③ 교육 수준 및 기관 유형에 따른 국가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교사 비율, ④ 교육 수준별, 학생 대비 자격을 갖춘 교사 비율, 교사 동기 측면에서 ⑤ 동등한 교육 수준을 요하는 기타 직업과의 상대적 평균 교사 월급, ⑥ 교육 수준별, 교사 감소율, 마지막으로 교사 지원 측면에서 ⑦ 연수 유형에 따른 최근 12개월 동안 직무연수를 받은 교사 비율 등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SDG4.c의 글로벌 세부목표와 지표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개도국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사교육 지원으로 차원에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4.c는 4.1부터 4.7의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수단적 목표로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K-SDG4.10에서는 국가 수준의 모니터링 차원에서 세부목표를 “모든 교육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한다”로 정하였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일반 교사는 양적 규모와 질적 수준에서 있어 뛰어난 편이다. 그러나 유아교육 단계에서의 보육교사나 특수교사, 상담교사 등은 부족한 편이다. 여기에 보육교사의 경우 교사의 자격과 교육·훈련 시간도 다른 학교급에 비해 낮은 편이다. 따라서 K-SDG4.10에서는 국내 지표로 ①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 ②특수교사 1인당 특수학생 수, ③공립유치원 정규교사 배치 비율, ④초·중등 전문상담 교사 배치 비율 등을 선정하였다.

■ 이행 현황

● 글로벌 교사교육을 위한 국제협력

한국 정부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1년 동안 교육 분야에 지원한 ODA 지출액은 총 1,709.2백만 달러이지만, 이 중에서 ‘교사훈련’으로 분류된 사업은 총 58.7만 달러로 전체 교육 ODA 지출액의 3.43%에 불과하다(안해정 외, 2017). 교사교육에 대한 ODA 지원은 다른 교육ODA 지원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경향성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중장기적인 전략보다는 그때의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여 왔다. 교사교육 분야는 국제사회에서도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될 뿐만 아니라 한국은 우수한 교사 자원과 교원양성 및 연수기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협력 요구도 높은 편이다(안해정 외, 2017).

● 유치원 및 보육교사

현재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은 이원화체제로 인하여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법적 근거, 관할 부처, 자격구분과 최소 학력기준, 양성 및 연수체제 등이 다르다. 유치원교사는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교육부에서 담당하며 2년, 3년 또는 4년의 양성과정 완료 후에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하게 된다.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며,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2년, 4년의 양성교육을 통하여 보육교사 3급 또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받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 교원(원장 및 원감 포함) 중 학사학위소지자 이상 비율은 51.4%이다. 반면, 보육교사의 최종학력은 2-3년제 졸업 비율이 48.6%로 가장 많으며, 4년제 졸업 26.5%, 고등학교 졸업 18.5%, 대학원 재학 이상은 2.6%로 나타난다(2015 전국 보육실태조사). 또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전체 보육교사의 최초 자격취득기관은 1년 양성프로그램인 보육교사

교육원이 32.7%로, 2-3년제 대학 37.1%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다(김은설 외, 2016).

● 전문상담교사

변화하는 사회와 학교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소외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프로젝트)을 통해 적응에 취약한 위기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기준으로, 전문상담교사 2,297명, 전문상담사는 3,681명으로 초·중·고등학교 수 11,909개교에 비추어 볼 때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의 양적·질적 확대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 특수교육 교사

2019년 현재 전체 특수교육 교원(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은 20,773명(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 2019)으로 전체 교원의 약 4.5% 수준이다. 그러나 통합학급의 경우에는 이를 담당하는 전체 교원 54,253명 중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는 1.1%인 580명에 불과하다(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 2019). 비록 법적으로 통합교육에 대한 시책과 통합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특수교육 자격을 갖춘 교사의 충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매년 특수교사를 증원하고 있으나 특수교사 정원충원율은 2018년 현재 71.9% 수준이다(연합뉴스 2019.4.19.일자). 따라서 특수교사 증원이 절실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5차 특수교육 5개년 발전계획(2018-2022)에서는 유·초·중·고등학교 단계별 통합교육 지원 방안 수립·적용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보급, 통합교육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통합교육 수행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등 통합교육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방안들을 추진 중에 있다.

■ 향후 추진 방향

한국 정부는 SDG4.c의 글로벌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교사교육 분야의 ODA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내용적으로도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안해정 외, 2017).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크게 교사 양성교육, 재교육, 자격제도, 선발 및 임용 등 교사교육과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적 역량을 높이는 방식과 교원양성기관의 교수나 학생, 현직교사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안해정 외, 2017). 그러나 제도 개선에 대한 지원은 자칫 공여국

에 대한 문화적 증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안해정 외, 2017). 또한 교사교육의 교육기간, 양성기관의 단계, 교육과정 등 제도적 특징이 다르다는 측면에서도 공여국 주도의 양자 협력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여국 주도의 전통적인 협력 방식이 아니라, 교사교육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에 의지가 있는 수원국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국제기구나 지역 내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안해정 외, 2017).

교원양성기관의 교수와 학생, 현직교사의 역량을 높이는 일은 주로 초청연수, 장학생, 봉사단 파견 등 인적교류 협력 형태로 진행해 왔으며, 제도 개선에 비해 비교적 용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협력이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지금까지의 교사교육 분야 교류협력 사업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사교육과 관련한 교류 사업을 개도국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갖는 교육개발협력 사업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교원양성 및 연수기관이나 전현직교사 등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초·중등학교 교과 교사를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까지 확보하고, 유치원·특수·비교과(보건, 전문상담 등) 교사는 법정 정원 확보하여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양질의 보편적 영유아교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정비하여 단일화하고, 최소자격기준은 국제 수준에 맞추어 학사학위(ISCED 6)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1) 기존의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전환을 위한 방안(학위취득 및 연수)과 2) 단일화된 신규 영유아교사 양성체제가 필요하다. 현재 유치원교사에 비하여 보육교사는 최소 자격기준이 낮으며, 진입수준도 낮다. 보육교사의 경우 현재의 이수학점 중심에서 학과(즉, 유아교육, 보육 전공) 중심으로 양성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영유아교육의 질이 교육내용보다 교사와 영유아의 상호작용의 질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므로, 교사의 인성과 전공이수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교현장을 이해하는 역량을 갖춘 전문상담교사 및 상담사 배치가 필요하다. 또한 특수교육 차원에서는 특수학생 1인당 특수교사 수를 법정 기준에 맞추어 확보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 내 특수교사 배치 비율도 높여야 하며, 통합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한 담당교사의 전문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VIII

요약 및 결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하여 한국은 두 가지 차원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나는 목표 설정 및 이행 현황의 모니터링을 위한 기반 및 추진 체계 구축의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 추진을 통한 목표 달성의 차원이다. 각 차원의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 설정 및 이행 현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한국은 국가적 수준에서의 계획을 수립하였고,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무엇보다도 새 정부 수립과 함께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재정립이 포함되었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계획이 마련되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주관 하에 범부처가 참여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설정 및 관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으며, 상향식 방식(Bottom-up)을 따라 한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와 지표체계가 만들어졌다. 시민단체, 산업계, 정부 부처, 국책 연구소,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민·관·학 공동 작업반이 초안을 마련하였고, 이 초안을 토대로 이해관계자 그룹, 부처별 실무 TF 및 국장급 협의체 등의 검토와 사회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지역별 순회 토론회, 국민 대토론회 등이 개최되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승인되었다. 이러한 이행 노력의 결과,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여 일부 목표 및 지표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절대빈곤, 국민영양결핍해소, 여성관련 유해 관습 등이 제외되었고, 만성질환 대비, 저출생 극복, 통합적 수질관리,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 남북 간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 등이 새로 포함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18).

교육 분야의 경우, 교육부를 국가조정관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총괄기관으로 하는 이행 체계를 수립하였고,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이행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협의체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등을 비롯한 관련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관련 정

책연구 및 데이터 보유 등이 전문 분야별로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기관 간 협력과 공유가 필수적이다. SDG4-교육 2030 협의체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의 수립 활동에 참여하는 한편, SDG4의 국내 확산 및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통합 또는 분야별 포럼을 개최하였고, 총 11종의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둘째, 4.1에서 4.c에 걸쳐 총 10개의 세부목표별로 이행 성과가 확인되는 가운데 여전히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도 남아 있다.

먼저 초중등교육의 경우, 주요 국제비교 학력평가에서 높은 성취수준을 보이고 있고, 초등교육과 전기중등교육 단계에서 무상 및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 등이 주요 이슈이다.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학업성취도 국제평가에서 최소 숙달수준 학생의 비율, 국가 차원의 학습 성과 지표 산출 등을 주요 지표로 설정하였다. 후기중등교육의 무상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 중에 있다. 향후 저성취학생의 비율,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및 학습 성과 진단 등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영유아교육 및 보육의 이행 현황을 보면, 2012년 이래 모든 3세 ~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2013년 이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원율이 지속적으로 90.0%를 상회하고 있다. 취학전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정책적 방향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국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율을 지표로 설정하였다. 향후 누리과정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확대가 요구되고, 모든 영유아에게 우수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은 높은 취학률이 보여주듯이 보편적 단계에 도달하였지만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접근성, 형평성이 사회적 문제였다. 이를 개선하고자 국가장학금 제도와 국가 학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시행하였다. 고등교육 이수율의 세대 간 격차가 큰 것도 문제이다.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또한 필요하다. 특히, 직업 관련 평생학습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ICT 역량을 포함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요청된다.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성별 격차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지역, 소득 등에 따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 정책도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이행 단계에서의 성별 격차는 여전히,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한국 성인의 언어 및 수리능력은 국제 평균에 준하나 중장년층의 언어 및 수리력이 상당히 낮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을 통해 문해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다양한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활동을 추진하였다. 세계시민교육 정책가이드, 교육과정 개정 및 교수학습 가이드, 각종 학습자료 등을 개발, 배포하였고, 교원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개념적 모호성과 이에 따른 도전과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전하다. 개념명료화 노력과 함께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노력도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시설, 재정, 교원 등의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한국의 경우, 이들 여건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고, 취약계층의 교육기회 보장, 학교 시설 및 학교생활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수학교의 추가 설립 및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의 증설, 통합학급 내 특수교육 전공교사 배치, 교육공간의 재구조화 및 안전 강화,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지원 노력 등이 요청된다. 다양한 재정사업을 통해 고등교육 기회 보장을 지원해 왔으나 고등교육비의 공부담 비율이 낮아 민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요청된다. 한국 교원은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 기본적인 교육의 질 보장 및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교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아교사, 특수교사, 상담교사 등이 여전히 부족하고 그 교육과 훈련을 위한 재정도 적은 편이다. 이들 교원을 법정 정원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자격기준 정비 노력이 요청된다.

SDG4 교육 2030을 위한 한국에서의 이러한 이행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쟁점과 이슈의 지속적 해결을 통한 정책적 노력이 요청된다. 무엇보다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구체화 및 정련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적극적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적 맥락을 반영한 목표의 수정, 지표의 개발 등이 중요하다. 2018년 한 해 동안 비교적 신속하게 추진체제를 마련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였으나 여전히 목표의 구체성, 타당성 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지표의 수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현재 선정된 지표의 타당성, 특히 목표와의 일관성(alignment) 문제는 지속적으로 검토·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상향식 방식과 절차, 전문가 그룹에 의한 작업반 활동 등이 추진되어 절차 상의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전문성을 가진 인력에 의한 지표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목표의 구체화 및 정련화 작업에는 물론이고 관련 정책의 추진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계획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부 부처, 유관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추진체제가 마련되었으나 주요 정책 담당 부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적극적 참여와 그에 따른 이행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된다. 다른 한편으로 정책 담당 부서의 과도한 개입 또한 경계의 대상이다. 이행 성과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인하여 지표 선정의 타당성 및 객관성을 흐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시민 사회로부터의 의견, 전문성에 토대를 둔 전문가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수렴·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책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여 정책 추진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취지와 의미, 그 이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 간의 일관성, 지표의 타당성 및 객관성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데이터 수집 가능성이다. 지표의 타당성이 낮은 것도 일면 데이터 수집 가능성의 문제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지 않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활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목표의 구체화 및 정련화, 지표의 타당화와 함께 데이터 수집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자료 수집이 가능할 수 있고, 나아가 데이터 간 연계를 통해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지표의 개발 및 활용이 가능하다.

참고문헌

- 강영혜·엄문영·이선호·김병주(2013). 고교 무상교육 실행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관계부처 합동(2018).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변경계획(안) : 2016~2035년.
- 교육부(2019).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 교육부(2018a). 2018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 교육부(2018b). 2018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 교육부(2018c). 2018년 탈북학생 통계 현황.
- 교육부(2018d). 2017 특수교육 실태조사.
- 교육부(2018e).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 교육부(2018f). K-SDG 교육분야 이행계획(안). 내부자료.
- 교육부(2016a). 통일미래 맞춤형 인재 육성. 교육부 보도자료(2016. 2. 18).
- 교육부(2016b). OECD,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 2015)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2016. 12. 6.).
- 교육부·고용노동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 한국인의 역량, 학습과 일:국제성인역량조사 (PIAAC) 보고서.
-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2019). 2019 특수교육통계.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a). 2018 간추린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b). 2018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c). 2018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 유·초·중등교육통계편.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d,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성인문해능력조사.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김수진 외. (2014). IEA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 ICILS 2013 결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운진·양미선·김정민(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김근진·윤지연·김민지·Chiu Chiu Peng·정광희(2017).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방안(III). 육아정책연구소.
- 박순용(2011). 한국형 ESD 평가지표(Indicator) 연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박성호·김혜자·남신동·박근영·길혜지·장유진·황지원(2018). 고등교육기관 신입생 조사 설계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보건복지부(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보육통계(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 서현숙(2018). SDG4-교육2030 국내외 이행현황. SDG4-교육2030 포럼 : 모니터링과 국내 이행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 안해정·서예원·최정운·김미숙·윤종혁·김창환·이기석·문무경·박환보·신윤정·윤철경·조지민 (2017).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연구(I) : 기초교육 실천 전략. 한국교육개발원.
- 안해정·서예원·윤종혁·김은영·임후남·박환보·최동주·김명진·이정화(2016). 2030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 실천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2018a).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 요약본: 교육의 책무성: 우리의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2018b). 한국교육과 SDG4-교육2030.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8c). 제2회 SDG4-교육2030 포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양질의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자료집.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7). SDG4-교육2030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위한 계획안. 회의자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6). 교육 2030 인천선언과 실행계획.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2014).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 데이터 분석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23.
- 이정금(2018). 미래사회 한국 다문화교육정책의 방향 탐색. 교육문화연구, 24(1), 549-567.
- 이정림·배윤진·조혜주·송요현·고성룡·이정희(2015). 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육아 정책연구소.
- 이현숙·김수환·김한성·이운지·임선아·박세진(2019). 2018년 국가수준 초·중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측정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이희수(2018a). 서론 : 한국교육과 SDG4-교육2030. 한국교육과 SDG4-교육203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이희수(2018b). SDG4.6 성인 문해교육 국내 현황과 이슈. 지속가능한 포용국가의 비전과 평생교육 혁신과제 포럼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조영달 외(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조지민(2018). 국내외 이행 현황과 우선과제. 2018년 SDG4.1 네트워크포럼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최유진·이택면·황정임·마경희·주재선·김은지·이현재·문희영(2016). 2016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 최윤정·김이선·선보영·동제연·정해숙·양계민·이은아·황정미(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최윤정(2018). 초중등 페미니즘 교육의 추진 여건 정책 방향의 고찰. 2018년 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2018.6.16.).
-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 한경구 외(2015). SDGs 시대의 세계시민교육 추진 방안.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양국제이해교육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4).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7). OECD PISA 2015를 통해 본 한국의 교육정보화 수준과 시사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8). SDG 4.5 교육형평성 국내이행을 위한 현황과 과제. 자료집.
- 한국장학재단(2018). 2017 통계연보.
- 한국행정연구원(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한국행정학회(2018). K-SDGs 수립경과와 세부목표 및 지표(안).
- 환경부(2018a). K-SDGs 수립 세부추진계획(안).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작업반 착수 설명회 자료집(2018.4.26).
- 환경부(2018b).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변경계획(2016-2035) 확정. 보도자료(2018.12.24.)
- Hayashikawa, M. (2015). *Education agenda 2030 and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Paper presented at Pre-World Education Forum session. Incheon, South Korea.
- OECD (2018, 2017a, 2016, 2015, 2011). *Education at a Glance*. 한국교육개발원 역. OECD 교육지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OECD (2017b). *Starting Strong 2017 Key OECD indicator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OECD (2013).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 Seo, H. S. (20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DG)4-Education 2030. 2nd Asian Cooperation Group Meeting on Educational 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Ministry of Educati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UIS (2017). *The Global Alliance to Monitor Learning (GAML): Governance and Organization.*
- UIS (2016). *Sustainable development Data Digest: Laying the Foundation to Measur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4.*
- UN (2012). *The future we want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6/288.
- UNESCO (2018). *Regional Roadmap for the SDG4-Education 2030 Agenda in Asia and the Pacific.*
- UNESCO (2017a). *Literacy rates continue to rise from generation to the next.*
- UNESCO (2017b). *Unpack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4 education 2030.*
- UNESCO (2018) 문답으로 풀어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4 교육203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UNESCO (2015a).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역. *세계시민교육: 학습주제 및 학습목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UNESCO (2015b). *Incheon Declaration and Framework for Action.*
- UNESCO Bangkok Office (2018). *Paving the Road to Education: A target-by-target analysis of SDG4 for Asia and the Pacific.*

〈웹사이트〉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hub4u.or.kr/hub/main.do>

OECD stat, <https://stats.oecd.org/>

UIS.Stat(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http://data.uis.unesco.org>

UN SDGs 웹페이지 <https://unstats.un.org/sdgs/iaeg-sdgs/tier-classification/>

〈언론보도〉

연합뉴스 2019. 4. 19.일자 : 선생님 없는 장애학생들... 특수교사 법정정원보다 태부족,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9094200004>

부록표 1 | K-SDGs 교육분야 세부목표 및 지표

번호	세부목표 10	지표(27개)	티어 (Tier)
4-1	모든 아동이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질의 무상 초등·중등교육의 평등한 이수를 보장한다.	• 학업성취도 국제평가(점)	I
		• 국가 차원의 학습성과지표 산출	I
4-2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회를 보장하여 초등교육에 대비한다.	•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안녕 (well-being) 측면에서 발달정도가 정상적인 5세 이하 여아와 남아 비율	III
		•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	I
		•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I
		• 긍정적인 가정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	III
4-3	모든 학습자들에게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해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 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	II
		• 고등교육 이수율(%)	I
		•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민간부담 비율	I
4-4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한다.	• 평생학습 참여율(%)	I
		•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II
4-5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주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 등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든지표에 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분리통계 도입	I / II / III
		• 취학률(%)	II
		• 학업중단율(%)	II
4-6	모든 청소년과 다수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 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 비율(PIAAC) ※ PIAAC(국제 성인역량조사)	I
		• 청소년·성인 문해율(%)	II
4-7	지속가능발전,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관련 국가 교육정책 이행	III
		• 교육과정 내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요소 포함	III
		• 세계시민교육 교수역량강화 교원연수 누적 인원(명)	II

번호	세부목표 10	지표(27개)	티어 (Tier)
4-8	아동, 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개선하고,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I
		• 학교 내진보강률(%)	II
4-9	포용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 단계에서의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 Wee 클래스 설치 비율(%) ※ Wee : We Education + We Emotion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상담 역할)	II
		•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I
4-10	모든 교육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한다.	•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	II
		• 특수교사 일인당 특수학생 수	I
		• 공립유치원 정규교사 배치비율(%)	II
		• 초·중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	I

출처 : 환경부(2018b)

*티어(Tier) 정보는 연구진에 의한 분류

만든 사람들

■ 연구진 (한국교육개발원)

- 과제책임자 : 박성호(교육지표연구실장)
- 공동연구진 : 한효정(교육지표연구실), 임후남, 윤선애(이상 교육통계센터), 김효정(국제협력실)
- 연구원 : 윤혜신(교육지표연구실)

■ 연구협력진

- 교 육 부 : 안희정(국제교육협력담당관)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조우진, 서현숙, 오동준, 김현정
- 초등교육(4.1) : 조지민(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영유아교육·보육(4.2, 4c) : 문무경(육아정책연구소)
- 고등교육(4.3, 4b) : 이성은, 황정원(이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직업훈련(4.3, 4.4) : 김철희(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병영(한국교육개발원)
- 교육ICT(4.4) : 김민, 서종원, 변수진(이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교육형평성(4.5) : 조혜승(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문해교육/평생교육(4.6) : 임숙경(이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지속가능발전교육/세계시민교육(4.7) : 김재홍(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오혜재(유네스코한국위원회)
- 학교환경(4.a) : 김현진(한국교육개발원), 이상민(한국교육개발원)
- 특수교육(4.a, 4c) : 이대식(경인교육대학교)
- 교육ODA(4b, 4c) : 박환보(충남대학교)
- 번역 : 김솔희, 김한나(이상 한국교육개발원)
- 통계검수/시각화 : 한효진(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SDG4 이행 현황 연구

발 행 2019년 7월

발행인 원장 반 상 진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주 소 ☎27873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7 한국교육개발원
전화: (043)5309-114
팩스: (043)5309-819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비매품입니다.



한국의 SDG4 이행 현황 연구